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진부하면서도 늘 새롭게 들리는 언론인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언론이 내외의 도전을 잘 극복하고 그 正道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특히 사회구조가 다원화되어 여러 집단, 여러 계층 간의 이해와 갈등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언론을 일컬어 제4부라 부르고 여기 종사하는 언론인을 지칭해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통용된다. ‘제4부’라 함은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국가의 세 기둥이라 한다면 언론은 그 반열에 버금가는 네 번째 기둥이라는 뜻이다. 흘러간 옛 노래의 낡은 가사 같은 케케묵은 이 箴言들을 여기 새삼 들먹이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나라 언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 한다면 오늘의 우리 언론은 넘쳐나는 자유 때문에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것 같다. 시류에 그냥 휩쓸리거나 알파한 대중적 嗜好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의심이 간다.

多媒體시대 무책임한 행태 판저

언론이 이런 병에 걸려든 최대의 원인은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는 이른바 多媒體時代라는 환경 호르몬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에 수없이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 매체가 지금 수백 개에 이른다. 그 뉴스 가운데는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 일부러 만들어낸 헛소문, 쓰레기 같은 저질소문, 난무하는 막말 욕설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擬似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뉴스원이 분명치 않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뉴스가 아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소문은 절대 저널리즘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난장판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려는 自淨운동이 없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는 핵무기 공갈 등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 내부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익집단끼리의 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자명해진다. 세상을 감시하고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올바른 여론을 일으켜 공동체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제도적 기능을



최서영

·본회 자문위 의장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

넘쳐나는 자유탓에
‘아니면 말고’식
擬似 뉴스 범람

세상감시-이해조정
自淨운동으로
제도적기능 살려야

다 해야 한다. 적어도 오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古典的意味에서의 언론의 이런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천하대세에는 지극히 둔감하면서 가십(Gossip)거리 뉴스에 매달려 정력을 허비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신문, 방송의 자화상이다. 허파에 바람 드는 줄 모르고 손톱 밑 가시에만 정신이 팔린다는 격언이 그대로 들어맞는 모습이다. 예를 들면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뉴스가 온 언론을 한참동안 뒤덮다시피 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나? 그들이 1년 넘게 국정을 농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작은 사례 하나 보도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언론계 내부에서 과녁을 잘못 골랐다는 自歎의 소리가 나왔겠는가.

언론인의 위상 또한 많이 망가지고 있다. 사회의 목탁이니 無冠의 帝王이니했던 옛날 모습은 이제 아무데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언론인의 모습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大所高處에서 호령은 하지 않더라도 자유인의 기상과 不羈의 야성만은 잃지 말아야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희미해졌다. 모두 조직속의 일원으로 馴致된 월급쟁이가 되고 말았다. 서글픈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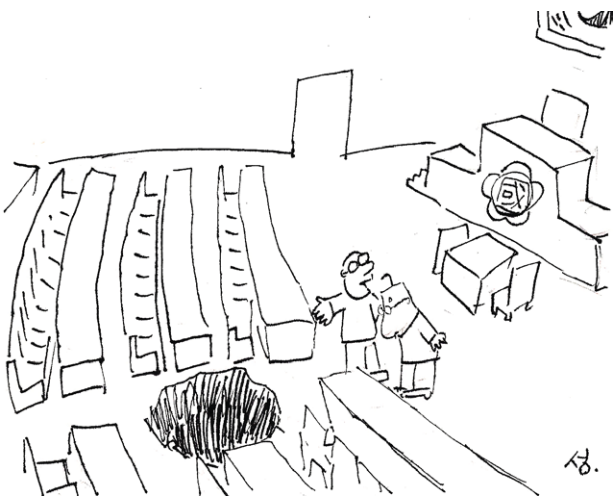
언론시간 人的교류 활성화 바람직

지금 우리 언론인의 모습이 이렇게 된 病源은 패거리 벽에 막혀 人的交流가 전혀 불가능 하다는데 있다.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언론계 풍토는 他社間의 인적교류가 왕성했다. 예를 들면 천관우선생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오가며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영원한 사회부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오소백씨는 서울, 경향, 한국, 세계, 대한 등 여러 신문사를 전전 하면서 사회부장을 지냈다. 일선기자나 논설위원의 경우 왕래가 더 자유스럽고 빈번했다. 그것이 지금은 각 사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줄어들까 겁나서 끼리끼리 벽을 쌓는 바람에 소통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자유경쟁의 꽃이 만발했던 언론계의 옛 풍토가 그리울 뿐이다.

이제 한국 언론, 언론인은 다매체 IT시대를 맞아 그 본분을 뚜렷이 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지구 온난화로 킬리만자로의 萬年雪이 다 녹아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의 저널리즘이 녹아버리면 안 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해도 천하를 감시, 비판하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영원히 ‘제4부’ 노릇을 해야 하고 언론인은 ‘사회의 목탁’, ‘무관의 제왕’ 노릇을 해야 한다. [K]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통진당 뿌리가 뽑혀나간 구멍이죠”

본회 회우 대명콘도이용 혜택

전국 11개 지역... 주중 회원요금에 1만원 추가

흔들바위가 바라보이는 설악과 스키장이 있는 흥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 있는 대명콘도를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회 김은구 회장과 (주)대명레저산업의 안영혁 대표이사는 지난 1월 29일 ‘대명리조트 평일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 및 제공 협약서’를 맺고 이날부터 대한언론인회 회원과 가족들이 주중(평일)에 콘도객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대상리조트: 전국 11개지역 대명리조트

이용대상: 대한언론인회 회우 및 가족
이용시기: 주중(일요일~목요일)
이용요금: 객실 - 회원요금 +1만원
부대업장(스키월드,오션월드,아쿠아월드,골프장,사우나)-회원대우
이용방법: 홈페이지 예약:

www.daemyungresort.com

전화예약: 1588-5859

*예약할때는 고유번호 49131701을 알려 주고 이름을 대면 된다.

18면에 지역별 요금표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캠페인이 한창이던 2004년 가을, 필자는 동료 언론학자들과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 기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주류언론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했던 그 무렵, 우리 언론에 대한 외부인의 평가가 궁금했던 것이다. 그 외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시 교도통신(共同通信)의 히라이 히사시(平井 久志) 서울지국장이었다. 한국 언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한 그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한국 언론은 ‘후카시’가 들었다고 할까요.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으로 과장한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씁니다.” 그날 조간의 톱 기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지적하는 그의 말에 부끄러웠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원과 언론중재 조정신청 11,000건 넘어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언론은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더 심해졌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매일 쏟아지는 언론보도를 보노라면 착잡하다 못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가슴을 짓누른다. 지난 연말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속칭 ‘구원과’라 부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으로부터 조정신청 폭탄을 맞았다.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의 청구를 포함해서 구원파가 신청한 조정 건수는 11,000건을 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신청 건수가 모두 2,433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구원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얼마나 큰 업무 부담을 지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업무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이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라도 조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구원파의 과도한 조정신청 청구가 이 제도의 취지를 남용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로 인해 우리 언론의 불쌍사나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조정신청 대상이 된 대부분의 언론사는 보도내용을 일부 정정하거나 구원파의 반론을 실는 것에 합의했다. 이것은 언론의 구원파 보도가 상당부분 근거 없는 풍문과 추측이었음을 방증한다.

우리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비단 구원과 보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지난 해 발생한 거의 모든 사건, 사고에서 과장과 왜곡을 일삼는 선정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방송기자연합회가 세월호 보도를 자성하며 펴낸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은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보도’와 함께 ‘사실 확인 부족과 받아쓰기 보도’를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부터 유병언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거의 매일같이 근거 없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라는 희대의 오보는 우리 언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19세기 말 미

‘뉴 옐로 저널리즘’ 경계령

특별기고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보도

과장-왜곡-선동 난무

“전원구조” 誤報까지

제대로 된 언론인 육성

독자·시청자 신뢰로

경쟁력 키워가야

국에서 저널리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옐로(yellow) 저널리즘’이 21세기 디지털시대에 한국에서 부활한 느낌이다. 1890년대 뉴욕에서는 신문재벌 조셉 풀리처의 ‘뉴욕 월드’와 윌리엄 허스트의 ‘뉴욕 저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두 신문은 신문 판매를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내용들을 커다란 제목과 사진으로 포장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옐로 저널리즘이란 말은 여기서 나왔는데, 그 현상의 본질은 극심한 시장경쟁에 있다. 자본주의사회 언론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공산주의 언론과의 차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언론은 정론(正論)보다 옐로 저널리즘으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커진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단연 유리하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스쿨’ 창설 등 대책 시급

‘신(新)황색언론’ 시대의 도래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미디어시장의 개방과 과학기술 발달로 각종 뉴미디어가 출현하면서 매체간의 경쟁은 심화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시대에 포털이 등장하고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산업의 지형이 천지개벽하면서 전통적인 신문, 방송은 생존 기반이 위태롭게 되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독자(시청자)의 관심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편집국 기자는 대폭 줄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확인할 여유가 없다. 본전을 까먹고 있는 종편 채널로선 체면 불구하고 저비용 시사토크로 때우는 게 상책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밀도 끝도 없는 미확인 풍문들이 버젓이 활자화되거나 방송을 타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매체들이 퍼 나르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보도는 말할 것도 없다.

저널리즘의 가치가 이토록 처참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에서 옐로 저널리즘의 극성은 역설적으로 저널리즘 스쿨의 탄생 계기가 되었다.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언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100년 전 미국과 지금의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작금의 ‘신황색언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부론 속보보다는 심층적인 분석으로 나가야 한다. 아무리 처지가 어렵더라도 하루살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좀 더 멀리 보고 독자와 시청자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우리 언론계는 정원 초과 상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냈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매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고, 저널리즘의 경쟁력은 독자와 시청자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말본새’는 국가품격의 척도



최병요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

우리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저들이 끄떡하면 앞세우는 핵 무기 위협도 위협이려니와 그보다는 저들의 절제되지 않은 말투로 인한 말초 신경 자극이다. 어떻게 그런 모질고 야비하고 흉측한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는단 말인가.

앞뒤 가리지 않고 악을 써대는 욕지거리에 우선 정나미가 떨어진다. ‘에이, 한심한...’ 하면서 그 유치함에 혀를 끝 끝 차보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저들은 우리에게 ‘각성하라! 겁먹어라!’ 하는 의도로 지껄일 테지만 듣는 우리는 하나도 겁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오히려 같은 민족임이 부끄럽고 측은할 따름이다.

부드러운 말씨가 더 설득력 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은 좀 불편해도 입술을 통해 내보내는 말은 항상 부드

러워야 한다. 그래야 말에 설득력이 붙고 존중할만한 인격자로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문명이 앞섰다고 하는 서구 나라 사람들을 겪어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말씨가 점잖고 부드럽다는 것이다.

특수층, 점잖은 사람의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보통사람들의 일상대화에서

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대화는 하나같이 소곤소곤 조용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마땅한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정도로 완곡하게 반대의견을 말한다.

우리처럼 대뜸 ‘이런 엉터리가 있나!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대응하면 멀뚱히 쳐다보다가 자리를 뜬다. 그러곤 나쁜 사람, 덜된 사람이라고 분류해버린다.

물론 그들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선 오브 비치’ ‘퍼크 유’ ‘빈치 두 마드레’ 등의 욕설을 한다.

하지만 이는 뒷골목의 건달들이나 사용하는 말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틀렸다.’고 규정해놓고 마치 적군을 대하듯 타도하려는 습관에 젖어버렸다. ‘다르다’의 반대개념이 ‘같다’이고 ‘틀리다’의 반대개념이 ‘옳다’인 것을 아예 모르쇠 하는 타인부정의 사고인 것이다.

간혹 영어를 사용할 때 ‘different’와 ‘wrong’을 혼동해 표현하면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도 우

3면으로 이어집니다.

방송 - 인터넷언론 정화 시급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신문 산업의 경영 악화가 신문의 언론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듯이 방송의 경영 위기도 방송 본연의 역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방송의 수익성 악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었다. 그럼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안이한 운영을 하던 공중과 방송들이 작년에 수백억씩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갑자기 비상사태를 맞이한 셈이다. 특히 그동안 저조한 시청률로 관심 밖이던 종편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중과의 입지는 더 축소되었다.

신문과 방송시간 갈등 양상 보여

종편의 대주주들인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자신들 소유의 종편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중과 방송들이 경영타개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광고총량제도입, 다채널서비스실시, 초고화질방송(UHD)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지상파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들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영세채널의 몫을 가로채가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문과 방송의 갈등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방송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최첨단을 가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품질, 공영성 등의 소프트웨어측면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기간의 방송보도는 우리 방송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재난보도준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장에서의 사실 확인, 사건의 분석, 인터뷰 원칙에 이르기까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실종되었다. 보도의 양은 과하게 넘쳤으나 질적으로는 매우 부족했던 것이다. 그것은 KBS를 포함한 공중과 방송과 종편채널 모두에게 공통된 현상이었다.

종편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면서 지상파 3사에 큰 자극제가 되었고 시청자의 선택 폭을 넓혀 주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지상파 방송이 커버하지 못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편이 방송 콘텐츠 저질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기프로그램이 하나 생기면 포맷 모방을 통하여 획일화가 이루어지기 일쑤며, 제작비를 가장 싸게 들이면서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싸구려 정치 토크 쇼나 무책임한 사이버 의학에 집중한다는 비판이다.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과거 공중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자극적 언사들을 남발함으로써 방송의 품격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방송은 외적 다양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따라서 모든 방송정책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방송생태계 조성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방송 정책은 정치적 진영논리나 공공성 이데올로기 논쟁에 휘말려

특별기고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

종편TV 등장으로 콘텐츠 저질화 가속 과감한 구조개혁등 정책적 접근 필요

사이버공간 수많은 매체 범람 사회적책무 부과 규제기준 강화해야

장기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도 정책 주무부서가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확실한 공영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여건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득권 타파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콘텐츠 제작만이 현재의 방송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념갈등-정치적 혐오감 부추겨

인터넷 언론의 속내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과거 사이버 언론의 행태가 그대로 재현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 언론의 숫자만 보더라도 약 5천개가 넘게 등록된 인터넷 신문과 200여종의 포털, 거기에 SNS나 팟캐스트 등의 신종 군소 언론을 합한다면 집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매체들은 극도로 열악한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자극적 기사로 클릭 조회 수를 높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이용하여 몇 분 만에 짜깁기하여 만든 가짜 기사를 마치 실제 현장취재 기사인 것처럼 내보내는 ‘어뷰징’ 기법이나 독자의 시선을 잡기위한 제목 낚시질은 한국 인터넷 언론의 일반적 관행이 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존재이유는 사이버라는 무한대의 정보공간을 이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게 사회적 진실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이와 반대이다. 이념갈등이나 정치적 혐오감을 부추겨 오히려 공격적 정치극단주의를 형성시키고 있다.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조롱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사이버 공간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나 과장의 허접한 쓰레기로 도배된 것이다.

사이버 인터넷 언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주된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그들의 기사가 게재되기 때문이다. 검색 점유율 뿐 만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네이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우리 역사상 단일 매체가 한 사회의 정보 확산에 이렇게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특히 인터넷 언론은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연명하는 상태에 있다. 제공한 기사에 대한 조회 클릭수에 비례하여 대가가 결정되다보니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기사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포털에 게재된 그릇된 정보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입는 직간접적인 피해와 왜곡된 여론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유료방송이나 이동통신 분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과 관련해서도 절대적 시장지배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 엄격한 사후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을 정화시켜야만 인터넷 언론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E]

2면에서 이어집니다.

리말을 할 땐 식자들도 ‘우리 같은 경우 너와 틀려서 아침에는 아침밥을 안 먹는다...’라며 문법도 어법도 맞지 않는 말을 태연히 지껄인다.

갑을 관계는 원래 평등한 관계여야 옳다. 그런데도 ‘甲’인 나만 있고 ‘乙’인 상대방은 없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우월의식으로 거친 말과 막말을 입에 담는다. 어떤 지도층 인사는 아예 전문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상스런 말을 내뱉는다.

그리곤 유명세를 즐긴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버젓이 대중매체에 다시 나타나 또 흰소리를 한다. 소위 막된 말로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갑을간의 우격다짐, 부끄러운 자화상

말에는 독소가 있다. 아마 전갈이 내

뿜는 독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다. 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은 신체적인 위해보다는 말의 독소에 쏘였을 때이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말의 독소는 정서를 망가뜨리고 사고를 마비시키며 심지어 신체기능까지 저하시키는 해를 끼친다는 게 통설이다.

더 끔찍한 것은 말의 독소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경험이다. 발설자의 지극한 뉘우침과 간절한 사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만 흔적까지 지우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몸속의 대항기전이 맨 먼저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에 대한 기억이다.

반대로 천하에 없는 수전노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탕감해준다. 이게 말의 위력이다.

우리의 말본새가 너무 곱지 못하다. 부부 간, 친족 간, 친구 간, 이웃 간, 동업자 간, 노사 간, 정파 간, 갑을 간 대화가 모두 공격일변도의 험악한 말투다. 언어행태 전문가는 ‘경제가 팽창해지면서 이기주의가 만연해 甲한테 받은 상처를 곧바로 乙한테 되갚는 분노 돌리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득 챙기려는 부류 도태시켜야

문제는 이 같은 막말 쌍말 세태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혹자는 민도를 들먹이지만 교육만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폭언과 악담도 일종의 폭력이다. 작금의 성폭력문제에 대처하듯이 자기의 말에 반

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회적 경각심과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지도층 식자층 특히 언론의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 한번만이라도 막말 험한 말 상스런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매도하고 추방하고 매장시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됴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공적인 위치에서 막말 비상식적인 말로 인해 비난을 받고서도 버젓이 공공매체에 다시 등장하는 일만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어문화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민족임을 내세우는 증표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언론 자체모순 척결 나서야

광복 70년의 세월에 언론은 파란만장의 역경을 헤치면서 언론자유, 알 권리, 진실보도의 가치를 앞세우고 달려왔다. 싸우다가 넘어지고 꺾이면서 때로는 타협도 하는 동안 어느 듯 언론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국력신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정보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언론도 성장을 거듭한 결과다. 언론자유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거의 제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금기가 깨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 받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성과 이뤄

양적인 팽창도 엄청나다. 외형적인 발전에 비례하여 질적으로도 자랑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방송과 정보통신은 경계가 무너졌고 전파매체와 SNS는 국민 개인의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방송기기는 전자산업과 연계되어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한다. 방송은 국제적인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여 ‘한류(韓流)’의 해외진출을 견인한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도 활발하다. 하지만 이같은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에 걸맞게 언론이 본연의 사명을 올바르게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복 이후 신문 잡지 출판은 권력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던 시기가 오래 계속되었다. 그 결과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문·통신, 잡지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은 크게 세 차례 반복되었다. 신문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는 ①광복 직후 미군정 초기(1945~1946), ②1960년 4·19 이후의 제2공화국 시기(1960~1961), ③6·29 선언 이후의 언론자유화 시기(1987~)였다. 반대로 권력의 물리적인 통제로 신문이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도 있다. ①1961년 5·16 직후의 언론사 일제정비, ②1970년대 초반의 ‘1도(道) 1사(社)’와 통신사 통폐합, ③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이다. 언론사의 숫자가 정치상황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우리의 언론이 정치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증거다.

권력에 맞선 언론의 투쟁은 한말 이래 우리 언론의 전통이자 특징이었다. 하지만 광복 후 좌우익 대립과 건국 과정의 혼란기를 거쳐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언론이 권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물리적인 힘을 지닌 권력과 압력단체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문 잡지가 개별적으로 여론에 호소하거나 출입처별 기자단 수준에서 항의하는 방법 외에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

미군정 기간에는 좌우익 대립의 혼란 속에서 정파성을 띤 신문·통신·잡지가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사회의 혼란, 영세한 언론사의 경영상태, 급조 양산된 언론인의 자질문제, 그리고 언론 자체가 지닌 부정적인 체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와 언론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이상은 퇴색되면서 당국의 언론통제와 신문발행의 억제, 언론인 구속 등의 시련에 직면하고 말았다.

50년대 중반 이후 언론인 단체 구성

제 1공화국 시절은 좌우익의 대립, 6·25전쟁으로 이어진 당시의 정세로 말미암아 언론을 자유방임 상태로 둘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언론과 정부는 쌍방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못한 채 갈등의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것이다. 언론인들은 1950년대 중반 이후에야 단체를 구성하여 힘을 모으기 시

광복 70년
歷史의 교훈

정진석

·분회 명예회우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권력 견제속 성장
외형적 발전 불구
본연사명 自省소리진영논리 부추겨
국가발전 저해
비난소리 커져

작했다. 1957년 1월의 관훈클럽 결성에 이어 4월에 편집인협회, 6월에 경영자 단체 신문발행인협회, 7월에 통신협회가 탄생했다. 이리하여 1958년 1월 11일에는 편집인협회와 신문발행인협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참가하여 언론제한 조항 입법 반대 전국언론인대회를 개최하여 언론계와 범 문화계의 의사를 강력히 표시할 수 있었다. 1974년의 언론과동을 계기로 기자협회가 창립되면서 경영주, 편집인, 기자의 3개 직능을 대표하는 기간단체가 정립(鼎立)되어 언론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대외적인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졌다.

제 2공화국 민주당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한다는 방침이었다. 자유당 치하에서 언론통제가 원성의 대상이었다는 반작용으로 언론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억눌렸던 언론은 자유를 넘어서 무책임과 방종으로 흐르면서 사이비 기자가 발호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언론의 역기능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5·16 후에 언론사 일제정비라는 타율에 의한 구조개편을 강요당하는 빌미를 주었다. 제 5공화국은 언론기법을 동원하면서 통폐합을 강행하여 구조적인 통제를 실시하였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통제와 탄압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의 언론 통제 시도는 그치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세무조사와 여론조작을 통해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 1999년의 이른바 ‘언론장악문건’이 그 사례였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을 공언하면서 언론사 표적 세무조사와 함께 ‘언론 선진화법’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으로 언론입법을 강행하였다. 언론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었음은 현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다.

광복 직후 좌우익 대립시기 방불

광복 이후 70년 동안의 언론역사는 이처럼 권력으로부터 일방적,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로 강조되었다.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다. 제 1공화국에서 제 5공화국까지 권력은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 언론탄압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주로 동원하였다. 신문, 잡지, 통신을 신규로 등록하여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등록증은 일종의 특허였고 이권화(利權化)하여 재산권으로 인식되었을 정도였다. 신문, 잡지, 통신이 순수한 경영난을 이유로 자진해서 문을 닫는 경우는 드물었다. 강력하고 타율적인 강압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던 현상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반성할 부분은 없는가. 1987년의 6·29선언과 언론자유화 이후에 발행의 자유는 보장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광복 직후에 좌우익 신문이 대립하던 시기를 방불케 하는 이른바 ‘진영논리’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는 없는가. 4·19 직후를 연상케 하는 부실매체와 인터넷 신문 등이 과다하게 난립하여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많다. 책임 있는 언론을 선도해야 할 주요 신문들도 가십거리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늘어난 지면을 도배질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은 외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자체의 모순을 척결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시대가 온 것인가. [조]

우문현답 2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문현답의 새 뜻은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갈파. 百聞不如一見의 명언이다. 탁상공론식 愚問賢答은 백해무익하다. 국민 언론을 경청함이 위민 정치다.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북한과 공동 기념 하겠다고? 남과 북은 정치 사상적으로 적대적임을 망각한 건 아니겠지? 공상과학 영화제작도 아니고! 무슨 이벤트 놀인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유한준(편집위원)

to my father?

영화 '국제시장' -한 미숙한 영화평론가의 영화

'100자 발언대'

평론이 아닌 정치평론으로 많은 논란과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기고, 영화사에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0대부터 60, 70대의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는 이 영화에 대해 반미와 현대사 비틀기가 없어서 불편한 영화평론가는 '토(吐)'가 나온다고 했다. 영화 '국제시장'의 영문 제목은 'Ode to my father'(나의 아버지에 바치는 헌사)라는데 이 영화평론가의 영문 제목은 '토 to my father'라고 해야 하나?

정창기(편집위원)

두 여자 이야기

신나게 떠벌이며 나라를 욕보이고도 미안한 줄 모르는 그녀를 미국으로 추방하니 시원하기는 한 데 화도 난다.

잘하면 안아주고 미우면 때려주고 그렇게 사는 게 보람인데... 어즈버 걱정 마라 불기칠 이야 어디엔들 없을 소냐.

땅콩 뱀에 비행기 돌렸다는 여자, 감옥도 가고 터지고 슬프고 온갖 일 다 겪었는데 못매가 심하다는 말들도 있더라고... 옛날 군함 타봤는데 대장이 타도 배 오가는 것은 함장이 하는 거라던데... 기장은 뭘 했나요.

호천웅(편집위원)

박대통령 결단의 기회는 남아있다

박근혜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 광복 70년을 맞은 남북관계 개선 추진을 밝혔다. 박대통령은 “국정 3년차에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강한 소신과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신년 회견이 있은 직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 35%, ‘부정’ 55%로 취임 후 최저치를 보이더니 회견 2주 후 조사에서 지지율이 한 주전에 비해 5% 포인트나 떨어진 30%로 급락했다. 박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같은 시기, 55%에서 60%로 올라 긍정평가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人的 쇄신 여론 저버린 인상

현재 박대통령에겐 호재보다 연말정산 세(稅)과동 등 악재가 폭발해 좀처럼 지지율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국민으로서도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박대통령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위임했기 때문이다. 심상치 않은 것은 박대통령 지지 층이 다수인 50, 60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점이다. 박대통령과 청와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는지 23일, 새 총리 후보와 특보단을 발표하고 문제의 ‘문고리 비서관 3인’에 대한 업무 조정, 부서 이동 등 부분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문고리 권력’ 행사 등 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들 ‘3인’은 대다수 여론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통령 곁에 남게 됐다. 사실 이들 ‘3인’이야 말로 비서실장과 함께 ‘인적쇄신’ 여론의 1차적 대상이었다. 그런 만큼 논란의 중심 인물에 대한 미온적 조치는 ‘인적쇄신’ 여론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또 다시 실망한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 염려스럽다.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정수행 동력을 잃게 될 뿐 더러 자칫 레임덕 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소통문제다. 앞서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에서 박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가 ‘소통 미흡’이 19%로 가장 높고 ‘인사문제’가 13%로 높았으며, 신년회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인도 ‘소통부족’ 14%, ‘일방적 주장’ 8%로 ‘소통부족’이 큰 문제로 제기됐다. 사실 이 ‘소통’과 ‘인사쇄신’은 본회가 신년 1월 대한연론 ‘우리의 주장’을 통해 “박대통령의 인사혁신과 소통의 정치를 위한 대결단을 촉구”했으며 정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도 끊임없이 진언하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그동안 각료 대면, 각 계 만남 등 소통문제에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박대통령 취임 이후 각 계에



문명호

·본회 주필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신년회견 이후

지지율하락

국민 경고등 켜져

기자회견 자주 열어

중요사안 직접 설명

각계와 쌍방향 소통을

서 가장 많이 주문한 말이 ‘소통’ 일 것이다. 그만큼 박대통령에겐 ‘불통’의 이미지가 따른다. 정치권이나 여론은 박대통령에게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도록 권해 왔다. 각계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청와대 밖 얘기를 들어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스스로 문을 닫고 밖에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박대통령이 보인 ‘소통’은 각 계 각 층과의 ‘양방향’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소통’이나 다름없다. 국민들로서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특보단을 만들어 국회나 당·정간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하지만 모든 일은 지도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국민에게 다가가면 그것이 곧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도 좋을 것이다.

대처-메르켈 총리 본받아야

11년간이나 총리로 재임한 영국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는 각료들과 런던의 다우닝가 10 총리 관저에서 회의를 할 때 토의가 길어져 저녁때가 되

오늘의 니대르

이 홍 우(본보 편집위원)



〈채널A TV 시사방법 방영〉

면 주방으로 들어 가 손수 저녁을 준비해 각료들과 저녁을 같이 들며 토의를 계속했다고 한다. 박대통령과도 가까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재정지원 같은 찬반 논란이 큰 문제는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정책을 설명하고 또는 일본의 원전사고 후 원자력 발전 반대 여론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결단’의 지도력으로 유명하다. 현재 집권 3기, 10년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독일 첫 여성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최근 무려 96.7%로 높다.

미국의 ‘위대한 커뮤니케이터’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세제나 복지, 외교 안보 등 중요한 국가적 정책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 총무와 세출 예산 외교관계 군사위원장들을 백악관으로 초치해 이들과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며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은 항상 의회와 유기적 접촉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 간다.

9·11 테러 후 국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은밀하게 이라크 공격 계획을 세울 때 백악관 안보회의가 끝난 후 이를 반대한 콜린 파월 국

무장관이 독대를 요청하자, 두 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 하며 파월 국무장관의 유엔과 국제연대를 통한 제재 방안 등 반대 견해를 경청하고 “고맙소”라고 치하했다 (밥 우드워드 저 ‘공격 플랜’에서).

그 다음으로 박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갖도록 하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곧 국민과의 대화이다. 본회는 지난 해 8월 ‘박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소통하라’는 ‘우리의 주장’을 통해 “국민적 통합과 소통을 위해 정례 또는 수시든 자주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작년과 올 1월 두 차례만 기자회견을 가졌을 뿐이다.

지난 1월 회견에선 기자들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질의·응답으로 회견다운 회견의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들은 정례 회견 말고도 사안이 중요한 내용이면 사전 예고 없이 대변인 뉴스브리핑 시간에 기자들 앞에 나타나 직접 설명을 하곤 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아 왔다. 놀랍게도 언론과 개방적 관계를 가졌던 미국 대통령들은 성공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들이다.

박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최저치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통진당을 현재에 제소해 해산시킨 것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처, 전시작전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킨 조치는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 만큼 박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끌어 올릴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그 길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것이다. 박대통령 자신이 행정 각 부서 정책 수행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박대통령은 회견 후 청와대 회의 전 특보, 수석들과 티타임을 갖고 민생행보를 늘리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원칙과 신의’를 중히 여기는 박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비교적 짧은 민주화 연륜에서 첫 여성지도자를 선택한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박대통령은 심기일전(心機一轉), 결단의 기회를 살려 나가기 바란다.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는 항상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본문 아이콘]

김정은의 미끼 ‘頂上 회담’ 신중하라

서독은 결코 서둘지 않았다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은 동독과의 정상회담을 서둘지 않았다. 동서독 정상회담에 매달린 쪽은 동독이었다.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동독은 서독과 대등한 국가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1대1 정상회담을 서둘렀다. 여기에 서독은 느긋하게 접근했고 1970년 3월부터 정상회담을 시작,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서독은 교류확대의 일환으로 통행 조약을 관찰시켰으며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 동독 개방을 촉매하여 끝내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서독과는 달리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구걸하다시피 매달려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에게 불법으로 현금 4억5천만달러와 5천만달러 어치 현물을 찔러주고 둘의 만남을 샀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선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을 만나서는 우리의 북방한계선(NLL) 남쪽 상당 부분을 남북공동어로 구역으로 하자는 김의 제안에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라고 화답, ‘이적 행위’ 등 NLL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10·4 공동선언에선 북한에 천문학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김·노의 남북정상회담은 대등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김정일과의 ‘종속(從屬)회담’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두 정상회담 후 각기 2년과 2년 반만에 서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끔찍한 해전을 도발했다. 핵무기 폭발 실험도 계속했다. 북한과는 정상회담으로 평화를 살 수 없음이 확인 되었다. 북한에 퍼주고도 북의 군사도발과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는 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북한은 남한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에 사족을 못 쓴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정상회담을 미끼로 사용한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미끼로 농락했다. 김정일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조문 명분으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를 서울로 보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전달했다. 그 때부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그 후 싱가포르와 개성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벌이게 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3개월 전 까지도 이명박 측근 인사와 접촉하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척 했다. 북한의 정상회담 띄우기는 천안함 폭침을 위해 이 대통령의 대북 경계태세를 허물기 위해서였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이 피격당하자 “내부 고장에 의한 것은 아니냐”, “북한의 소행 여부는 ‘최종 물증이 나올 때 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도리어 싸고돌았다.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김정일이 그럴 리 없다고 착각한 탓이었고,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대북 분노 폭발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었다. 정상회담 미끼는

특별기고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구걸하다시피 했지만 돌아온건 무력도발뿐

조건없다는 北신년사 만날의사 없으면서 유리한 상황 만들려는 의도

독성이 강해 이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김정은의 숨은 의도 간파해야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미끼로 낚으려 든다. 김정은은 올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의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분위기와 환경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다음 다섯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김정은을 패륜아·독재자로 때리는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조건이다. 둘째 김정은을 암살하는 미국의 일본계 영화사 소니픽처스의 ‘더 인터뷰’ 한국내 상영 포기, 셋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넷째 대북 퍼주기 재개, 다섯째 북한 핵 묵인 등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상회담 미끼에 농락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지역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아서 안 되지 않느냐”며 대북전단 반대로 기울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의 1월1일 정상회담 언급에 흔들렸음을 엿보게 한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언급에 동요되는 것 같자 20일 “남한과 남북문제를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돼있다.”며 미끼 하나를 더 던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날 대통령들이 북한의 정상회담 미끼에 중독돼 국가에 크나 큰 손상을 입혔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단지 미끼로 여길 뿐, 실제로 자신과 만나는 데는 망설인다는 점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은은 박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친북적이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정상회담에 매달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은 박 대통령과 만나봐야 아버지 김정일이 얻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키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는 서두를 리 없다. 김은 정상회담 성사 보다는 정상회담을 미끼로 박 대통령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하며 관망하려 한다. 김은 정상회담 미끼로 앞서 지적한 다섯 가지 전제 조건들을 잡아채려 한다.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잣밥에만 눈독을 들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선(先) 북핵 폐기-후(後)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민주화와 개방화, 인권 개선, 선 천안함 폭침 사과-후 경제지원 등을 확보할 의지가 없다면,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지난 날의 실패한 두 정상회담들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서독은 정상회담을 동독 개방과 교류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자유민주에 바탕한 통일의 기반을 다져갔음을 유의해야 한다. “서둘면 빈 틈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서둘지 말고 원칙대로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 [국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12,500여개의 병이 있다고 한다.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인지 우리 선인들이 치료약을 만병통치약이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층- 생명까지 위협 받는 무시무시한 병이 있다.

암? 아니다. 그러면 뭐지?

입원 질병 1위, 사망 원인 6위. 매년 25만~27만 명 입원, 고령층에선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질병. 건강장수를 가로막는 이 질병의 이름은 바로 폐렴이다.

2002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폐렴 사망률은 5.6명이었으나 2012년엔 4배 가까이 늘어 20.5명에 이른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그런데 어떤 병을 앓든지 최후엔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는 것이다. 암환자, 뇌혈관환자도 마지막에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인의 적’ 폐렴 조심

65세이상은 위험군

그런데 왜 폐렴이 노년에 위험한 것일까? 만 65세 이상 노인은 만성질환과 상관없이 연령만으로 폐렴 위험군이라고 한다.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므로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나 건강할 때와 달리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때 폐렴균이 신체를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며칠 약을 먹으면 열이 나다가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젊었을 때 이야기”라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폐렴에 걸리면 대개 입원하고 일부는 중환자실에 가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경각심을 가질



이보길

·본회 회원사업위원장
·본회 건강포럼간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독감이 유행할 때 폐렴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독감유행 때 늘어나

그러면 폐렴의 원인은 뭘까? 가장 흔한 징후는 감염성 폐렴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균에 의해 생기며 드물게 곰팡이, 기생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폐렴, 흡인성 폐렴도 있다. 노인과 어린이는 폐의 방어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져 있어 폐렴에 잘 걸린다. 노약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에 대한 방어능력이 더 낮아진

다. 폐렴은 생각만큼 만만한 질병이 아니다.

독감과 함께 예방접종해야

폐렴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폐렴 구균 백신은 폐렴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하지만 심각한 폐렴구균 감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폐렴구균은 전체 폐렴의 20~40%를 차지하는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중증감염을 잘 일으킨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도 함께 받으라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환절기가 되면 면역력은 더욱 떨어진다.

이때다 하고 폐렴균이 신체 여러 부위로 침투한다. 연령과 무관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만성질환자도 두 백신을 모두 맞는 게 좋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

7면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정책 실행력 - 효율성이 관건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 어느 해보다도 주목된다. 여러 국내외 난제 앞에 무릎을 꿇어 더 나쁜 국면으로 뒷걸음을 할지, 아니면 희생의 밝은 길로 나아갈지, 갈림길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안한 세계경제 전망

대외 악재로는 국제유가 급락과 작년에 양적 완화를 종료한 미국이 올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투자자금 이탈 문제를 비롯, 재연되고 있는 유로 존의 경제위기, 러시아의 경제불안,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일본의 엔저 심화 등 겹으로 드러나 있는 요인만 해도 수두룩하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까지 감안하면 언제 어디서 위기요인이 불거져 나올지 올 한해 세계경제 전망은 한 마디로 불안하고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국제유가가 기록적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수조원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평균 3.8%로 예상했었지만 최근 이를 3.5%로 낮췄다. 미국이 올해 3.6%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경제는 작년에 7.4% 성장해 2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7%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 3개월동안 미국투자자들이 한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투자액 가운데 7천여억원을 회수해 갔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면 미국자금의 탈 한국현상이 가속화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한국증시가 부진한 반면 미국 증시의 경기회복을 반영한 상승세 요인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시장 스위스 충격파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최저환율제를 새해들어 기습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져 주었다. 유럽연합(EU)회원국은 모두 28개국, 이중 단일통화인 유로 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한데 묶어 유로 존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새해 들어 가입한 리투아니아를 포함해 19개 나라가 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서 EU회원국이 아니며 유로 존에도 속하지 않아 자국 화폐인 스위스 프랑화를 사용한다. 유로 존의 중앙은행(ECB)이 위기의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의 전철을 밟아 양적 완화를 단행기로 해 강제 통화국인 스위스가 유로화의 대량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가 환율하한제 폐지이다. 그러나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돼 국제금융계에서 조차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비롯, 세계 각국의 증시에서 한때 주가 폭락 현상을 보였으며 외국의 환거래 업체 가운데서는 스위스 프랑화의 폭등에 따라 파산 또는 긴급자금 조달에 나서야 하는 등 충격파가 컸다.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폐지와 그 파장을 상세하게 소개한 까닭은 세계경제에서의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우리 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유값 하락은 好材-惡材 공존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이처럼 많은 장애요인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평균도입가격이 작년 1월 1배럴에 104달러였는데 올초 50달러선이 무너져 내렸다.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아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국제원유값 급락현상은 호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긍정적 효과만 보면 물가하락, 가처분소득 증가, 경제성장률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잃어버린 20년’

日本전철 안밖게

장기침체 막아야

정부-기업-가계

3인4각 체제로

힘모아 나갈때다

있다. 그러나 원유값 폭락은 세계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도 작용해 호재와 함께 악재 요인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 수출과 중동지역 등에 대한 건설수출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긍정적 효과 이상의 부정적 효과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문제만 하더라도 국제원유값 하락이 국내물가에 하락요인으로 작용할거라고 해서 반길 일만은 못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저물가 기조 속에 장기침체국면, 즉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추정된다.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머물러 저물가기조를 유지했다. 우리보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더 낮은 나라는 일본(0.3%)과 프랑스(1.0%) 밖에 없을 정도다. 과거에는 물가상승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원유값 폭락이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이같은 저물가 기조를 더욱 지속시켜 일본경제처럼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게 된다면 큰 일이다.

우리 경제가 해외 요인에 민감한 까닭은 그만큼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작년 한해 8백만여대를 생산판매, 일본 도요타, 독일 폴크스바겐,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프랑스 르노-닛산에 이어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 5위를 차지했다. 참으로 괄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중 수출이 7백여만대(해외 현지공장 생산 포함), 내수는 1백여만대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잃어버린 20년 경제’라 할 만큼 장기침체현상을 겪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다. 이미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어떻게 하든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저성장과 저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에서 장기간 머뭇거리는 현상 등등. 내수침체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비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가계에 이르기까지 누적돼 가는 부채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정치적 과잉 공약에 따른 복지정책문제 등은 우리 경제가 여기서 주저 않으면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현안일 수밖에 없다.

정부 올 한해 ‘경제에 올인’ 의지 보여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월12일 가진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 노동시장,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다른 분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저성장 추락을 막기위해 구조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경제란 단어를 이날 구사한 낱말 가운데 가장 많은 무려 42차례나 언급해 경제살리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다음날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4개 경제부처가 세종청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새해 첫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올 한해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게 했다. 정부는 단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인단든지 내수와 수출이 균형성장을 이루도록 해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경제정책 위기에 활력을 불려 넣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 한해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한 신성장산업에 1백조원을 지원하는 등 총 2백조원의 정책금융을 창조경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관건은 철저한 실행력과 효율성 극대화에 정책성공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흔히 창업 못지 않게 수성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만난을 무릅쓰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운동경기 중에 2인3각 혹은 3인4각 경기라는 게 있다. 두 사람의 발 하나씩을 묶거나(2인3각) 세 사람 중 두 사람의 발 하나씩과 가운데 한 사람의 두 발(3인4각)을 묶고 달리는 운동경기다. 특히 3인4각 경기에서 양편 선수가 가운데 선수의 오른 발과 왼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정부, 기업, 가계, 세 경제주체들이 3인4각 경기를 원활하게 하듯 힘을 모아야 한다. [E]

6면에서 이어집니다.

요하다. 면역력은 건강에 비례한다. 평소 영양 섭취를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면 폐렴이나 독감에 덜 걸리고, 걸린다 해도 가볍게 앓는다. 주의할 일은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자주 손을 씻는 게 좋고 비누를 칠한 뒤 최소한 20~30초 이상 구석구석 문지르며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 씻을 때 ‘해피 버스 데이 투 유’란 생일노래를 불러보자. 최소한 20초 이상은 비

누칠하고 손을 씻게 된다.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밤에는 충분히 잘 자야 몸의 저항력이 높아진다. 잘 때 커튼으로 창문을 전부 가려 불빛을 차단해 깜깜하게 하고 자는 게 좋다. 덧붙여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는 것도 좋다.

흡연자와 음주자는 고위험군

또 흡연과 음주를 주의해야한다. 흡연자와 음주자는 폐렴 고위험군이다. 흡연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폐렴구균 예

방접종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술을 마시거나 식사할 때 반주를 하면 알코올중독으로 본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술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미국 기준으로는 죄다 알코올중독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전부 폐렴 고위험군이다. 끝으로 감기가 길어지면 폐렴을 의심하라는 것이다. 감기는 보통 사나흘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는데 계속 악화되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다. 그때는 폐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전문의는 “발열과 기침이 2~3일 내에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폐렴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는게 좋다.”고 당부한다. 열도 잘 나지 않고 기침도 많이 하지 않는데 시름시름 앓고 음식도 잘 못 먹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중증 폐렴인 경우가 있다. 갑자기 밥을 못 먹거나 활동을 잘 하던 노인이 누워서 처져 있다면 폐렴일 가능성이 높다. 증상이 별로 없다고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 [E]

연말 방송상은 ‘당신들의 천국’인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다. 소록도 나환자촌 건설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진정한 삶과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이상주의적 세계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지난 연말 방송들을 보며 이 소설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유독 그 제목만이 크게 다가왔다.

방송사 힘겨루기 인상도

연말이 되면 지상파 방송들은 으레 방송상 시상상을 내보낸다. ‘연기대상’ ‘연예대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상들의 잔치가 바로 ‘당신들의 천국’이다. 자사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느 방송사의 ‘연예대상’에서는 신인상으로 원로급 여배우를 시상했다. 그녀가 예능 프로그램에는 처음 나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아무리 그렇지만 시청자들에 낯익은 원로 탤런트가 ‘신인’이라니...

예능이니 드라마니 하고 가르는 것도 방송사의 편의에 따른 장르 구분이다. 시청자 입장에서 오직 방송 프로그램일 뿐이다. 요즘 와서는 예능과 드라마, 보도와 교양, 교양과 예능, 드라마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른바 지식의 ‘통섭’ 현상이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로급 배우가 그들만의 구분인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다고 해서 ‘신인’이라니... 그런 유아독존식 발상이 어디 있나? 곰곰 생각해 보니 그 여배우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더더욱 신인상과는 거리가 먼 것일 터이다.

고정 편성돼 있는 개그 프로그램은 특정 방송의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방송의 개그맨들을 잘 모른다.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는 ‘개그맨 상’ 후보로 여섯 명을 소개하더니 그 가운데 세 명을 불러올려 시상했다. 평소 그 방송의 개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시청자 입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개그맨들이 세 사람 씩 상을 받는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무더기 시상이 되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할 일이 아니다. 방송사 내부 행사로 하면 될 일이다. 상이 너무 흔하면

상으로서의 의미도 없어지고, 오직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런 자체 시상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편성한다. KBS와 MBC 양대 방송 체제에서는 편성 시간을 상호 피해 갔는데, SBS가 가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KBS의 연기대상이 방송되는 12월 31일 밤 같은 시간에 SBS 연기대상을 맞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연기자들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생겼다. 같은 시간에

방 송 시 평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당신들의 천국’을 위해 어느 방송사는 자체 공개홀이나 스튜디오가 아닌 외부 장소를 대관해 건물 내외에 중계 카메라를 배치해 그 화려한 규모를 과시했다. 국내외적인 어려움이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지난해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행위였다. 지상파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엄살로 들렸다. ‘당신들의 천

국’을 위해 국민들은 언제까지 광고를 팔아주는 봉이 돼야만 하는 것인가?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국민들을(乙)인가?

연예부문 ‘신인상’에 원로여배우 국민을 ‘乙’로 보는 작태 사라져야

두 군데 행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방송사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자사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으면 수상 후보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어떤 연기자는 시간을 초월기로 조정해 두 군데 행사장에 잠깐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지상파들의 ‘당신들의 천국’에 끼이기 위해서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상의 특성상 사전에 수상 예정을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어떤 톱스타는 최고상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노라며 방송사의 출연 요청을 거부했다. 이 경우는 ‘천국’이 바뀐 것이다.

연기대상에 라디오 MC를 포함시킨 것도 어색하다. 연기자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자체를 연기로 보는가? 역시 시·청취자들과는 상관없는 ‘당신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터이다.

연말에 방송사들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축하는 행사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금도가 있는 법이다.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명색이 ‘상’이라면, 그것도 국민들 앞에 공개되는 상이라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희소성도 있어야 한다. 나라의 공공재인 전파를 ‘당신들’의 전유물처럼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아껴 써야만 하는 것이다.

지상파 3사 통합운영 바람직

지상파 3사는 연말 연기대상과 연예대상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3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진정으로 한국의 연기와 예능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예인을 선정, 시상해야 한다. 해마다 방송의 날에 방송협회가 주는 ‘방송대상’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상의 가짓수와 수상자가 지나치게 많고 나눠 먹기 식의 인상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신력을 잃고 있다. ‘방송대상’ 또한 ‘당신들의 천국’인 셈이다.

연기대상이 분야를 단막극, 미니시리즈, 연속극 등으로 세분하는 것은 상의 가짓 수를 늘려 수상자를 많게 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서는 이 통합 방송상에 케이블 TV 프로그램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국 최고를 뽑는 ‘한국의 에미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연말 ‘연기대상’과 ‘연예대상’은 ‘당신들의 천국’이 아닌 우리들의 천국이 될 터이다

종편-지상파 밥그릇 싸움 지양해야

종합편성 채널과 뉴스채널이 늘면서 지상파에 대한 공격도 가중되고 있다. 우선 하나는, 지상파 3사는 5개에서 6개에 이르는 케이블 유료 채널들을 거느리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타 케이블 TV나 IP TV에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재 전송료를 요구해 중소 방송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또 하나는 지상파들이 외주 제작사들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다.

여기에 대해 지상파는 대만의 예를 들면서 지상파의 경영 악화는 콘텐츠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종편과 뉴스채널을 대폭 허가하면서 진작에 예상됐었던 논란이고, 외주 제작을 장려하고 난 뒤에 형성된 방송가의 싼품속도이기도 하다.

지상파는 케이블이든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최근 보이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다툼이 자칫하면 밥그릇 싸움, 나아가서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의 ‘뺑뺑회향’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갑질’의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의 경쟁 상대인 종편들은 거대 신문사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당신들의 천국’은 없다. 함께 사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당신들의 천국’은 ‘당신들의 지옥’이 될 테니까... [필자]

‘국제시장’ 영화 무료감상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는 지난 1월 15일자로 타블로이드 18면 컬러로 동우회보 40호를 발행했다. 동우회 2014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 기사를 머리기사로 한 이번 회보는 1, 2, 3면에 걸쳐 2014년 송년회 소식을 실었다.

김광희 본회 상담역의 ‘갑을관계의 허와 실’ (2면 세정낙수), 동우 산클럽(회장 성낙오·본회 편집위원장) ‘3락의 하루’ (6면), 동우 음악감상 클래식 클럽 등 다채로운 소식들이 눈길을 끈다.

8~9면 폴페이지로 실린 동우사진클럽 작품상 사진과 추억의 앨범 그때 그 모습(11면), 안평선 본회 회우의 ‘광화문 네거리에 전설을 심었다’ (13면)등도 볼거리 읽을거리로 압권이다.

동우회는 또한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 3가 소재 서울극장에 회원 100명을 초청, 화제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사우회 소식

조우회보 16호 발행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는 지난 1월 22일자로 조우회보 16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20면에 걸쳐 다양한 소식이 실려있다.

올해의 조우상 제정 소식을 머리기사로 해 나온 이번호엔 허문도씨의 “이승만은 초인! 그가 나를 교회로 부른다.”

(1~2면), 여류작가 손정미 탄생(3면), 월간조선 부장대담(10~11면), 21세기 관동팔경을 따라(四季), ‘기적의 예술섬’ - 나옴시마(直島), 경원선 DMZ 트레인을 타고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특히 ‘불굴의 투사 이도형-나는 죽지 않는다’ (4면), 올해의 기부왕 김성환 화백(8면), ‘70대 歌人 변신한 농장주인 주종환 회우’ (9면)등 본회 회우의 진솔한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9면으로 이어집니다.

비판만 난무 ‘새 의제설정 - 해법’ 실종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 부정응답률이 취임 3년차 대통령 중 최악인 63%를 기록했고 1월16일 열린 첫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회의’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짜증 내게 하는 싸가지 없는 정당”이라며 “뜨거워지는 가마솥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고 성토했다.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였고,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3%였다. 정당정치의 정체성과 적실성의 위기다.

박대통령 지지율 30% 급락은 ‘문고리 3인방’ 교체불가를 밝힌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전 언론이 웅단 폭격한 시점이 변곡점이 됐다. 기자회견 후 대통령 지지율이 5% 하락했고 연말 정산 논란으로 또 5%가 떨어져 2주만에 10% 급락한 것이다. 보수·진보 신문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대통령의 ‘불통’, 인사부조리 등을 비판, 총리 교체와 청와대 조직개편을 유도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은 사내 필진 칼럼을 통해 박대통령의 트라우마·대인관계 부조화·리더십을 비판했고 사외칼럼의 대통령 비판도 날카로워졌다. 김형준교수(명지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지지세력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지지자 30%는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그 딸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며 “지지율 하락은 박대통령의 퍼스널리티(인격)에 대한 거부가 작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재창 석좌교수(외대)도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데올로기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처음 과반 득표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당에 뿌리를 둔 제1 야당의 동반 추락 상황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문고리 3인방 국정농단’과 대통령 리더십 문제로 여론몰이 하는 선택적 보도의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3년차 박근혜 정부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신문은 파수견 기능을 뛰어넘어 새 의제설정과 해법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YS~MB 정부 20년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강 해이·재벌의 최고 권력과 결탁한 위법과 탈세·외세와 연관된 방위산업 비리·다선 의원의 부패와 정치 권력의 부조리 등 누적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의 한계 제시 및 대미 핵외교 등 현안 타계에 나섰다. 정치권의 정쟁 정국에 포로가 되었다.

댓글 시비, 김정일·노무현 NLL 밀약설, 세월호 책임론, ‘정윤희 문건 파동’ 등에 대한 특검 주장 공방과 여야 당내 권력싸움으로 정치는 뜬 여론(浮議)에 휩쓸렸다.

일부 친이 세력들이 불을 지핀 집권여당 상층부의 내분은 ‘얼라들’ ‘조무래기’ ‘내친다’는 막말로 표출되었으며 제1 야당의 대권싸움은 분당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돈(停頓)상태의 정치 위기는 고질적인 정권 다툼 과열과 리더십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문시평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전 언론법학회 감사

정부가 한일공동파트너십선언 다음 날 가조인했던 신한일어업협정의 독도 근해 한일공동 관리수역 합의도 수정하도록 언론이 권고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샤를리테러 충격과
1월 7일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는 사무엘 헌팅턴이 1993년 포린어페어지에 기고한 “냉전 종식 이후 국제분쟁은 문명 간 충돌

이 될 것이다”라는 예단이 적중한 사건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게재한 샤를리 에브도

총하기 위해 받아들인 이민자를 프랑스가 국민으로 완전히 동화시키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다.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언론이 사회통합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시장’ 성공요인 탐사보도 눈길

1월 1200만 관객을 감동시킨 영화 ‘국제시장’이 좌편향 국사학자들이 만든 ‘100년전쟁’과 검인정 고교한국사교과서 왜곡을 극복했다. 흥남철수, 광원·간호사 파동, 월남전, 이산가족 찾기 등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한 1940년대생 월남 실향민 가정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국제시장’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문화기사가 많은 답론을 던졌다.

실향민 세대의 피와 땀 눈물을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을 보며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청년관객도 울었다. 잃어버린 시간의 역사적 정서를 사실에 가깝게 재현해 공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한국의 변영이 70대 노년 세대의 생사를 넘나드는 희생과 고난이 원동력이었음을 6·25를 모르는 세대에게 알려주는 한국 현대사다. 주인공 덕수가 흥남철수 때 놓쳐버린 여동생 막분이를 KBS 이산가족 찾기에서 찾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여동생을 찾은 덕수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보며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이만 하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예”라고 독백한다. 윤제균 감독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작품이라고 했다.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자식 안 굶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헌사일 뿐이라고 했다.

윤감독은 중복세력이 자학(自虐)했던 한국현대사를 사실대로 바라보게 했다. 1200만 관객을 돌파한 ‘국제시장’ 성공을 감독인터뷰, 젊은세대의 반응, 제작비 유치, 제작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증한 탐사보도는 높이 평가 할 만하다.

영화무대인 국제시장, 파동 광원과 간호사들이 모여 사는 남해 삼동면 독일 마을, 주인공과 비슷한 삶을 산 은퇴교수 발굴 기사도 좋았다. 영화 ‘국제시장’기사는 정권 다툼에 눈이 먼 정치판과 중복세력의 선전선동을 잠시 잊게 해준 청량제였다. [4]

대통령회전 보수 - 진보紙 모두 성토 정파주의 넘어서 사회통합 모색 필요

언론이 특정 세력과 이념에 충성하는 정파주의를 뛰어넘어 정치부패와 부조리를 극복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는 의제설정과 사회통합 기능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광복 70년 국민각성촉구 아쉬워

광복 70년 을미년 1월 1일 신문들은 120년 전 을미사변의 치욕과 분단 70년 역사를 반성하고 새 좌표를 찾는 사실과 특집을 실었으나 한 세기 전과 유사한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 각축에 대응할 국민의 각성과 정체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정쟁에 휩쓸려 언론도 직무유기한 것 같다.

일부 신문은 1976년 일제 침략 100년을 개항100년으로 자축했던 잘못을 2015년에도 반복했다.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에 따라 타결한 1965년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 50년을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 기념’으로 잘못 인식 했다.

일본은 “‘한일 합방조약’이 대한민국 건국까지 유효했다”고 주장하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문에도 한국 침략을 공식 사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공식 사죄를 받아내고 김대중

편집국을 습격, 12명을 살해한 테러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다. 사건후, 테러에 굽히지 않고 성역 없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겠다고 “나는 샤를리다”라는 연대의 구호가 퍼졌다. 테러 위협에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발해서는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도 종교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며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반대여론이 확산돼 표현의 자유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샤를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처럼 찬양되고 있지만 그 잡지에 실렸던 풍자만화는 증오 표현(hate speech)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좌편향 국사학자들이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을 증오하는 ‘100년전쟁’을 인터넷에 올려 사회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샤를리가 던진 표현의 자유 한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샤를리 테러범 형제는 알제리 이민자의 후손이다. 노동력을 보

8면에서 이어집니다.

최귀조 본회 이사 사우회장 선출

한국경제

한국경제 사우회는 지난 1월 21일 오후 6시 한국경제신문 대강당에서 제 3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최귀조



부회장(본회 이사)을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엔 조규만(본회 회우), 백일진(본회 회우)사우가 선출됐다.

사우회보 26호 발행

MBC

MBC 사우회(회장 김수량)는 최근 사우회보 26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 호는 송년모임을 생략하고 신사육을 견학했다는 머리가사를 비롯, 바둑대회,

낚시대회, 등산대회 등 각 동호인 모임 소식들이 다채롭게 실려 있다.

시론 ‘담뱃값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행기(8면), 독심으로 일군 위싱턴 미주방송(4면)등 읽을거리가 돋보인다.

고희연 폐지 8순연 열기로

본회 정기총회 2015 사업계획 확정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기총회.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대한언론인회는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 29차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원 301명(참석 124명, 위임 177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는 먼저 정운종 상임이사의 회무보고, 김성배 감사의 감사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일반회계 91,103,167원, 특별회계 80,545,314원 합계 1억 7천 1백 60여만 원 규모로 이는 전년도 보다 약 1천여만 원이 감소된 규모다.

김은구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노력했지만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회고하고 “금년에도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구 회장은 또한 갈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실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가능한 한 지출을 억제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상정된 몇 가지 안건 중 정관개정(회원자격요건 완화 및 임원정수 조정 등)건은 정관상의 재적 회원 3분의 2 참석이 안돼 무산됐고 고희연은 팔순연으로 대체,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4년도 회무보고>

다음은 이날 총회에서 정운종 상임이사가 보고한 2014년도 회무와 금년도 신규사업 내용이다.

대한언론인회 2014년을 회고하면 우선 19대 김은구 회장 취임이후 임원진 개편과 몇 가지 약속사업들을 수행하고자 심기일전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언론’ 발간, ‘언론인의 길-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4집) 발간과 대한언론상, 사진인간대상 시상 및 문화탐방(2회), 6·25참전언론인회 활동, 재외동포언론인대회 등 예년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특별히 지난 2014년에도 6·25 참전언론인회의 역동적인 운영에 힘입어 대한언론인회의 정체성과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봉 한석산 전적지 탐방, 인천상륙작전 재연, 계룡대 국군의 날 행사 참가에 6·25 참전언론인과 본회 회원이 다수 초청된 것은 대한언론인회의 높아진 위상을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6·25참전언론인 77명(참전 중군)의 명패를 프레스센터 19층에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국방부장관 명의로 헌액한 것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한언론인회 원로회원만을 위해 특별문화탐방행사를 주관해 준 것은 특기 할 만한 행사였다.

대한언론인회는 이밖에도 통상적인 회원복지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기왕에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후생복지 사업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그중 삼성언론재단과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후원으로 182명의 회원들이 전립선무료검진을 받은 것도 평가할 만한 회원사업 이었다.

2015년도 특별 추진사업

1) 퇴직언론인 실태조사

퇴직언론인의 생활 및 의식이나 노후 대책, 생활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그에 따른 노후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계획한 것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추진.

2) 본회회원 콘도이용사업

전국 대명콘도 비수기 주중 회원대우 이용방안 추진(1면 참조)

3) 회원 일거리 창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추진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인생나눔교실 인문학강사 채용’에 본회 회원 다수 추천.

-NIE 강사 추천: 한국언론진흥재단 3월중 선발예정. ☞

2015년도 사업계획 등 심의 본회 144차 이사회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29차 정기총회에 앞서 제 144차 이사회를 열고 2014년도 결산 및 회무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매년 송년회를 기해 만 70세 회우들을 대상으로 한 고희연을 팔순잔치로 대체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정기총회에 그 취지를 보고한 뒤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넘어지지 말자

29차 정기총회 스케치

대한언론인회 총회가 열린던 날
축사를 하러 올라간 원로 회우의 한 마디
"넘어지지 말자"

짧은 말에 담긴 긴 여운
넘어지다 일어난 뼈 저린 경험철학

칠팔십대 이빨 빠진 호랑이들
한 때 필봉을 휘두르며 불의를 질타하던
그 기백은 세월이 불살라 먹고
지금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작년에 열여덟이 넘어졌고
올 들어도 벌써 둘

안되지
아직은 넘어져선 안되지

또 다른 회우는
팔십하나인데도

내 나이가 어때서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라면서
이 좋은 청양의 해에
넘어지지 말고
양털처럼 보드라운
연애를 하자 한다

이학주

·본회 회우
·시인



대한언론인회

물론, 더욱 독감이나 유행성 감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게 목이 쉬기라도 하면 마이크 앞에 설 수 없어 애 태우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현업 할 때, 숙직 철야근무가 되면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여 입안이 마르고 목에서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 낙심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때, 정제된 소금을 약간 혀에 얹으면, 금세 타액이 분비되고 그래야 원활유진 기계 장치처럼 사람의 음성기관이 윤기 있게 구실, 맡겨진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관리는 모든 아나운서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우나에서 뜨거운 탕에 자주 드나들든가, 술과 담배를 극도로 자제하든가, 평소생활에서 가능한 한 과로를 피하든가,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자주하든가 하



전

·본회 회우
·전 KBS아나
·서울신학대
초빙교수



김은구 회장 사회.



신우식 고문 축사.



제재형 고문 축사.



정운종 상임이사 보고.

2014년 12월, 정운종 사무총장과 성낙오 편집위원장 등 두 분의 추천을 받아 김은구 회장 앞으로 가입원을 낸바, 소정 절차를 거쳐 가입이 승인되고 비로소 제가 대한언론인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니 기쁩니다.

저의 한국 나이 올해 82세, 1954년 20세 때, 당시 서울중앙방송국 KBS아나운서로 방송언론에 몸담아 30년 간,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일하였습니다. “아나운서는 뉴스로 시작하여 뉴스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 낮 12시, 정오뉴스를 오래 담당하다가 1984년 방송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신문제작에서 아무리 좋은 기사, 논설이라도 독자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먼저 양질의 신문용지와 선명한 인쇄라야 독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 역시 담당아나운서의 방송 실현은 그의 음성과 정확하고 명료한 발음, 다양한 음성표현이 아니면 좋은 뉴스방송 이미지를 청취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사람음성기관은 개인차가 물론 있지만 대체로 구강 내에서 타액 분비가 적정선을 유지해 주어야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나운서에게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편도선, 인후, 구강 등에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 응분의 대증 치료를 받음은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㉔

기억력 나빠졌다고 치매 안된다

고령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박하는 증상 (Senior Moments)과 경증 인지 기능 장애 (MCI·Mild Cognitive Impairment)는 대개의 경우 치매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가정의학연구 (Annals of

Family Medicine)에 실려 관심을 끈다. MCI는 그동안 치매의 전단계로 인식해왔다. MCI는 기억력, 언어 그리고 정신적인 기능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정도거나 테스트를 통해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MCI 상태는 모든 치매 환자가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연구자는 독일 키엘(Kiel) 지역에 위치한 1차 진료연구소(Institute of Primary Medical Care) 카두즈키예빅즈(Hanna Kaduszkiewicz) 박사 팀. 이들은 MCI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75세 이상 고령자 35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조사 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관찰기간 동안 MCI로 진단 받은 사람의 42%가 다시 정상인의 정신기능을 회복했다. 그리고 36%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중 21%는 MCI와 정상상태를 왔다 갔다 했고 15%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치매로 옮겨 간 것은 22%였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다. 카두즈키예빅즈 박사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MCI로 진단 받아도 치매로 이행하는 것을 막을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조기진단을 하면 치매로 이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보다는 하나의 경고로 보고 걷기운동 등 건강관리에 보다 힘을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 한 것.

현재 치매 조기진단은 양성자방출 단층촬영(PET)과 반복적인 기억력 테스트가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PET가 고가여서 모든 MCI 환자에게 이를 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미국 치매 전문병원에서는 MCI의 경우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PET를 권하지 않고 있다. MCI는 질병이 아니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데서다. 따라서 MCI로 진단되는 경우 이들에게는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낙관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MCI가 있을 경우 나이가 많고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하면서 우울증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치매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문]

회우들이 펴낸 신간

문인수 회우 에세이집 ‘거기 이어도가’

문인수 신입회우(전 KBS강릉방송국장)가 ‘거기 이어도가’라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제주태생인 그가 1984년 5월 KBS가 이어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했던 취재팀의 일원으로 탐사취재 때의 이야기를 쓴 ‘이어도를 보았다’ 등 8장 62편의 수필을 묶어

놓은 것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번뇌와 고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피안으로 인식되는 이어도가 오늘의 주요 영토개념으로 정리되기까지의 취재과정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문인수님은 언론인이며 문인이다. 또 마라톤을 생활화 하는 체육인이다. 그러기에 그의 수필에는 늘 이들 셋이 아우르며 빛어내는 맑고 고운 소리가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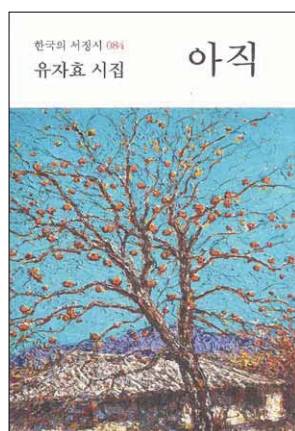
달콤하고 유연한 맛과 멋이 있다... 그의 수필에는 분명 마라톤 정신에다 삶을 접목시킨 건 강한 생활인의 신조가 있다"(오창혁 창작수필발행인의 발문)

문인수 회우는 환갑 나이에 마라톤을 시작해 10년 넘도록 달리고 있다.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60회, 100km 레이스 20여회, 200km 레이스 4회, 그리고 강화도에서 강릉까지 308km의 한반도 횡단 레이스에도 참가해 주변을 놀라게 했었다. '60에 시작한 마라톤, 70고개를 달린다'는 책도 펴냈다. 창작수필을 통해 수필문단에 등단했고 지금도 KTV의 시니어 기자로 취재활동하고 있는 노익장이다. [국문] (소소리 출판사·275쪽·책값 1만원)

유자호 회우 14번째 시집 ‘아직’

유자호 회우(본보 편집위원·전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의 14번째 시집 ‘아직’이 출간되었다. 〈너에게 내 사랑을 함빡 주지 못했으니/ 너는 아직 내결을 떠나서는 안된다/ 세상에서 할수있는 유일한 일은 / 내 사랑을 너에게 함빡주는것이다/ 보라/ 새 한 마리 꽃 한송이도 그들의 사랑을 함빡 주고 가지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들의 사랑이 소진됐을때/ 재처럼 사그러지는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너는 내 사랑을 함빡 받지 못했으니〉이 시의 제목인 ‘아직’ 등 모두 71편의 시를 담고 있다.

“유자호 시인의 시 세계는 오랜시간 탐구를 통한 따뜻하고 조화로운 생명의 서정을 심미적 일관성으로 보여준다. 유자호 시가 그러거는 감각의 동선은 참으로 유장하고 깊고 애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번 시집은 그러한 감각과 사유를 흔치 않은 진정성과 깊이로 보여주고 있다.” (유성호 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유자호 회우는 자신의 시집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나의 시에게. 나의 손을 떠나 세상에 내 보내니/ 널 아껴줄 좋은 주인을 만나 부디 잘 살아가/ 내 손을 떠

나면 이미 내것이 아니니/ 난 너를 잊어버리마/ 너도 날 잊고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아라〉라고 읊고 있다.

유 회우는 작년에 시집 ‘심장과 뺨’로 시와시학을 받았었고 정지용문학상, 유심작품상, 현대불교문학상, 한국문학상, 편운문학상 등도 받은바있다. 유시인은 이밖에 3권의 시선집과 5권의 산문집도 낸 문단중진이다. [국문] (도서출판 시와시학 펴냄·123쪽·책값 8천원)

회 가입의 辯



영우

문서 실장
고 신학대학원

여 자신의 건강관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나운서 생활입니다. 로마의 옛 속담에, “건강한 몸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온다.”하지 않습니까?

아나운서재직 중 서울신문문학원을 1년 다니고 졸업할 무렵(1959), 미국 ‘아나운서 핸드북’을 입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편집된 뉴스 원고를 방송할 때 뉴스 아나운서는 ‘스트레이트 리사이틀(Straight Recital)’을 염두에 두라는 충고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작곡자요, 이것을 방송하는 아나운서는 연주자란 추리가 어찌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KBS시절, 국영방송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방송하는 동안 4·19, 5·16, 12·12 사태 등을 겪고, 특히 4·19때, 기자들이 취재 편 집한 뉴스 원고를 들고 황급히 스튜디오로

들어가 방송,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파 방송을 하고, 회한의 나날을 보내다 마침내 중견 아나운서들이 뜻을 한데 모아 ‘방송중립화 선언’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애청자들에게 사과의 충정을 털어 놓던 일을 기억합니다. 바로 앞서 1960년 초, 당시 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선 조병옥 박사가 갑작스러운 병고(病故)악화로 도미, 입원한 지 며칠 안 되어 별세하자, 그의 유해가 돌아오고, 정부에서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바, 고 유석 조병옥박사 국민장 실황 중계방송을 제가 맡았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방송에 임하라”, 바깥 말하면, “청취층(국민) 감정을 되도록 격앙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직속 상사들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일층 신중하게 방송하던 일이 어제인 듯 새삼 저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방송언론에 종사하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국어화법)의 새 학문을 열고, ‘표준 한국어발음사전’을 편찬 발간함으로써 한국어발음 표준화 실현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던 일을 돌이켜 보니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언론인회에 가입, 여러분과 함께 언론의 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문]

본회 임원진 신년교례회

을미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오전 본회 사무실에서 고문단을 비롯,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진들이 신년교례회를 갖고 새해 새 출발을 다짐했다.(사진) [국문]



정재호 원로회우 저서출간 축하모임

일산언론인회

일산언론인회는 지난 1월 9일 일산에서 신년교례회를 겸한 정례 모임을 갖고 정재호(鄭在虎) 전 회장(본회 회우

· 전 국회의원)의 세 번째 저서 ‘진혼곡의 끝자락이 흐느끼는 까닭은’ 출간 축하행사를 가졌다. 일산언론인회는 언론계 원로, 중진모임으로 현재회원은 11명이다. [국문]

한밤중에 노인을 깨우는 빈뇨(頻尿). ‘백가지 병은 다 고칠 수 있어도 늙는 병 노화(老化)는 고칠 수 없다’는 속언(俗諺)이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종말(terminal)을 향해가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노순(路順)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종말치료(terminal care)의 항목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수면장애가 있다. 어차피 영면(永眠)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단히 성가시다. 그것이 비록 생사를 가름하는 일은 아니지만 안면(安眠) 곧 단잠을 자는 일은 피로를 푸는 최대 최량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과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은 건강상태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8시간 이상 자는 경우는 건강에 유해하다는 설(說)이 있으나 ‘백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건강한 백수자(百壽者)는 거의 12시간 가까이 잔다고 한다. 잘 자는 일은 잘 사는 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면장애’를 치료목적으로 삼는 의료가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잘 못 드는 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번에 쓰고자 하는 글의 요지는 ‘수면장애’가 아니라 노인들을 한밤중에 여러 번 깨우는 오줌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가신 빈뇨도 노인들의 ‘수면장애’를 거드는 일이므로 결국 잠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으나 핵심은 오줌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오줌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으나 물이다. 그러므로 인체속의 수계(水系)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저녁식사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줌이 잦을 수밖에 없으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낮에는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지만 저녁식사(6시) 이후에는 마시는 양을 줄이므로 한밤중에 여러 번 잠을 깨는 일은 없다. 단 한번 오줌을 담는 그릇(요강)에 일(排尿)을 끝내고 5분 이내에 다시 잠에 빠지는, 대단히 편리한 습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저녁10시에 잠이 들면 아침 8시까지 자는 잠꾸러기 같은 측면이 있어 ‘잠과 오줌’을 따질 일은 전혀 없다. 앞서 ‘인체 속의 수계’란 말을 썼지만 그것은 마신 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신장(콩팥)→방광→요도를 일컫는다. 의학용어가 아니라 내가 지어낸 말이다.

나는 수면장애나 한밤중에 여러 번 잠이 깨는 일은 없으나 70을 넘어선 후배들 중에 한밤중의 빈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그 까닭을 내가 밝혀서 고치고자 공리를 하게 되었지만 ‘인체속의 수계’의 기능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전공의(專攻醫)가 아닌 사람이 말기는 불가능 하므로 재작년(2013년) 6월에 일본에서 출간된 ‘의욕이 생기는 최강의 남성의료’란 책을 읽게 된 것이다. 책속의 한 대목을 그대로 (약간의 의역) 옮겨 싣는다. 제 2장중의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대목이다.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6>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오줌이 잦게 되었다는 일을 목숨에 관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의 외래(外來)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하므로 어쩔 수 없이 비뇨기과를 찾아온 사람들이 태반이다. 특히 밤중의 빈뇨는 ‘나 이 들면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남성의 경우 50세 이상이 되면 밤중에 1회 이상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반수 이상 되며 70세 이상이 되면 태반이 그렇게 된다. 게다가 70세 이상일 경우 남성의 30%, 여성의 10%가 한밤중에 화장실(오줌)에 가기위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걸 큰 문제다. 70세 이상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4년 이내에 ‘여섯 사람 중 한사람이

‘바소프레신’ 호르몬과 함께 ‘테스트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간여하게 된다. ‘테스트스테론’은 남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대칭이 되는 남자의 호르몬인 것이다. ‘테스트스테론’ 호르몬은 남자를 남자답게 하며 거짓을 싫어하게 되는 남성호르몬인데

‘테스트스테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바소프레신’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게 되는데 ‘테스트스테론’ 호르몬의 분비가 적은 사람일수록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된다. 물론 그밖에도 야간 빈뇨의 원인은 있다. 당뇨병환자는 핏속의 당분이 많으므로 이뇨(利尿)작용이 높아 오줌이 잦고, 고혈압 환자는 방광에서

몸속의 水系 철저한 관리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한밤중에 오줌 때문에 세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사람들은 4년 동안에 ‘세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 사망률이 배가(倍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밤중의 오줌을 쉽게 볼일이 아닌 것이다.

왜 늙으면 밤중에 오줌을 누고 싶은 횟수가 늘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포유류가 지닌 시련인 것이다. 물속에서 사는 양서류(兩棲類)라면 언제 어디서나 수분공급이 가능하지만 물에서 사는 포유류는 물에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몸 밖으로 배설되는 수분을 줄여서 수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줌을 질게 해서 오래도록 몸속에 담아둘 기구가 정비된 것이다. 이러한 오줌을 질게 하는 것이 뇌의 하수체(下垂體)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다. 젊었을 때는 특히 밤중에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넉넉하게 분비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오줌이 짙은 색을 띠게 되는 것은 이 호르몬의 작용이다. 그러나 ‘바소프레신’ 호르몬은 잠을 좌우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처럼 나이 많아질수록 밤중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줌을 농축시킬 수 없게 되므로 잠자는 동안에도 묽은 오줌이 만들어 집으로써 마렵게 되는 것이다. 오줌이 마렵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手順)이다.

밤중에 오줌이 마렵게 되는 데는

NO로 불리는 ‘일산화질소(nitrogen monoxide)’가 줄어들어 방광이 굳어져서 오줌을 많이 담아 둘 수 없게 되므로 오줌이 잦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산화(酸化)스트레스에서 ‘일산화질소’가 모자라게 되어 오줌이 잦게 된다. 남자의 ‘성기능 저하증’ 환자의 대부분은 배뇨에 문제를 갖게 되는데 그 원인도 ‘일산화질소’와 관계있다.

인간의 지각은 잠잘 때 민감하다. 게다가 방광이 산화하여 녹이 슬게 되면 점막 신경세포의 접촉부분이 약하게 되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세포가 세어 나오게 되는데 ‘아세틸콜린’이 오줌이 마려운 것을 알아차리는 신경을 자극하므로 많은 양이 모여 있지 않아도 절박한 요의(尿意)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밤중에 자주 오줌이 마렵게 되어 일어나게 되고 화장실의 소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질질거리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더러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른바 방광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활동 방광(過活動 膀胱)’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밤중에도 많은 양의 오줌을 누는 사람도 있으나 이 경우 신장기능의 악화를 의심할 수 있다. 낮에 활동하고 있을 때는

전신의 장기가 혈액을 필요로 하므로 그 때문에 신장으로 돌아갈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신장기능이 나쁜 사람은 오줌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밤에 잠을 잘 때는 흔히 옆으로 눕기 때문에 신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이 여유를 갖게 되므로 신장이 낮에 덜 만들던 오줌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밤중의 대량 배뇨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만성신장병의 주된 원인은 산화스트레스로 보여 지고 있는데 염분의 과잉섭취, 곧 짜게 먹는 사람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신장암도 조심해야 된다. 야간 빈뇨를 가늠하는 기준은 그 빈도수에 있다. 먼저 50대로서 한밤중에 오줌 때문에 2회 이상 잠을 깰 경우 요주의(要注意)다. 60세 이상으로 밤중에 3회 이상 오줌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 당뇨병이나 신장병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4년간에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의 사망률이 ‘세 사람에 한 사람’으로 불어나는 그 와중에 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사와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한밤중에 오줌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사람은 생활습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을 과도섭취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면 명심해서 줄이고 비만경향이 있다면 식습관을 바로잡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중을 줄이도록 노력할 일이다. 밤늦게 술을 마시면 숙면도가 낮게 되므로 ‘테스트스테론’ 호르몬의 분비도 낮아진다. 비만은 배뇨횟수를 늘리고 내장지방에서 분비되는 갖가지 물질은 산화스트레스의 원흉이 된다. 첫째로 권하는 일은 목욕이다. 느긋하게 따뜻한(39~40도) 물속에 앉아 있으면 부력(浮力)관계로 신장으로 피가 돌게 되므로 오줌이 잘 나오게 되고 따라서 밤중에 오줌 때문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게 된다.

또 빈뇨를 개선하는데는 ‘비아그라’라는 남성의 발기보조약이 효과 있다. ‘비아그라’에 의해 일산화질소의 작용이 높아짐으로써 방광혈관의 기능이 향상 되므로 오줌 누기가 정상화되고 남성호르몬 ‘테스트스테론’의 작용에 의해 건강상태가 좋아진다. 미국에서는 배뇨장애에 대하여 발기보조약(비아그라)을 보험에 적용시키고 있다.』

나의 경우 10년 넘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클럽에서 2시간 정도의 운동과 목욕(반신욕 20분)이 일과로 되어있다. 목욕탕에서 몸을 덥히는 20분 동안 가량이 퍼기 200번도 일과다. 압은 아니지만 수술을 두 번이나 한 전립선 건강을 도모하고, 한밤중에 오줌 때문에 잠이 깨는 일을 한 번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지난번 (15회)에 썼지만 토피바퀴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쏘 팔메토(saw palmetto)’ 1정(tab)과 아연(zinc 50)한 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함으로써 정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대가(代價)를 지불해야 된다. 마을버스도 차 샀을 내지 않으면 탈 수 없다.』

대한민국
민간의 드라마

KBS가 함께합니다

KBS가 함께합니다

溫故知新

화랑정신을 부활하자

화랑도(花郎道)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의 하나였다. 진흥왕 때 화랑도가 설치된 이후 화랑들은 앞다투어 나라를 위해 애쓰고 목숨을 바쳤다. ‘화랑세기(花郎世紀)’ 서문은 화랑의 설치 내력을 이렇게 전한다.

- 화랑은 선도(仙徒)다. 우리나라(신라)에서 신궁(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대제(大祭)를 행하는 것은 마치 연(燕)의 동산(桐山)이나 노(魯)의 태산(泰山)과 같다. 옛날 연부인(燕夫人)이 선도를 좋아하여 미인을 많이 모아 국화(國花)라 불렀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로서 원화(源花)를 삼게 되었는데, 지소태후(只召太后)가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하여 국인(國人)들로 하여금 받들게 했다.

이에 앞서 법흥대왕이 위화랑(魏花郎)을 사랑해 ‘화랑’이라고 불렀다. 화랑이란 이름은 여기서 비롯됐다. 옛날에 선도는 단지 봉신(奉神)을 주로 했는데, 국공(國公)들이(봉신을) 베풀어 행한 뒤 선도는 도의를(덕기에) 서로 힘썼다. 이에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뺄어났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로부터 나왔다. 화랑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조에도 이렇게 나온다.

- 봄에 비로소 원화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인물을 알아볼 수 없음을 근심하여 무리를 모아서 놀게 하고, 그 행실을 본 뒤에 뽑아서 쓰고자 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여자 두 명을 선발했다. 한 명은 남모(南毛)요 또 한 명은 준정(俊貞)이었는데 모인 무리가 300여 명이었다. 그러나 두 여인은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서로 질투하게 되어 준정이 남모를 집으로 유인하여 군이 술을 권하여 취하자 끌어다가 강물에 던져 죽여 버렸다. (중략) 그 뒤에 다시 얼굴이 아름다운 사내를 뽑아 이를 곱게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꾸며서 화랑이라고 이름하고 받들게 했는데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혹은 도덕과 의리로써 서로 연마했고, 혹은 가무로써 서로 즐겼으며, 산수에서 노닐고 즐겨 멀리 가보지 않은 데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됨의 올바름과 간사함을 알게 되어 착한 자를 뽑아서 조정에 천거했던 것이다.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에는 ‘어진 보필과 충성스러운 신하는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들도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

‘화랑세기’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던 고려 인종 23년(1145)까

지도 존재했다. 이 책에는 540년(진흥왕 1)부터 681년(신문왕 1)까지 재임했던 제1세 위화랑(魏花郎)부터 제32세 신공(信功)에 이르는 풍월주(風月主·화랑의 우두머리) 32명의 전기와 가계, 그리고 화랑의 조직과 파벌 등이 실려 있다.

화랑제도는 설치된 이후 김문노, 사다함, 김유신, 김춘추, 김반굴, 김관창 등 술한 국가 동량을 길러내어 결국 삼한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원광법사(圓光法師)는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화랑 세속 5계를 만들어 이들의 활동의 규범이 되도록 했다. 화랑도야 말로 민중을 교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난세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다.

민족통일의 길은 멀기만 한데 또다시 간고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지만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기는 여전하다. 국운의 융성을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탁월하고 출중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국강병(富國強兵)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은 거기에서 나온다. 국력의 강화는 문무의 조화에 서 비롯된다. 문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화랑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4]

가슴뭉클한 노부부의 삶 · 사랑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를 보고

늙으면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 강원도 횡성 산골에 98세의 할아버지와 89세의 할머니 부부가 외롭지만 소꿉장난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들 노부부의 가족은 개 두 마리. 청량한 공기와 야트막한 뒷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개 짖는 소리가 노부부의 적막함을 달래줄 뿐이다. 그래도 노부부의 금슬은 청춘이다.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다가 낙엽을 서로에게 던지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장난을 치고, 할아버지는 노란 국화를 꺾어 조그마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할머니에게 바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으며 “예쁘다”고 속삭인다. 할머니는 꽃다발 속의 국화 한 송이를 꺼내 할아버지 안경대에 끼우며 “잘생겼다”고 화답한다.

산촌에 눈이 내리면 할머니는 “첫 눈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두 손 안에 든 눈송이를 할아버지 입안에 넣는다. 할아버지도 할머니 입에 눈을 넣으며 “눈이 설탕보다 달다”고 너스레를 떠난다. 밤에 할머니는 안채 밖에 있는 뒷간에 갈 때 할아버지에게 보초를 서달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보초를 서면서 옛노래를 흥얼거린다. 할머니는 감성파고 할아버지는 로맨티스트이다.

진모영이 촬영·감독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강원도 횡성에 사는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와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의 실제 삶을 담았다. 76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삶과 사랑과 이별을 담은 다큐다. 노부부의 삶은 동물성 고기가 빠진 식물성 채소 식단이지만 담백하고 깊은 맛이 있다. (영화 속 노부부 식

탁은 김치 등 채소 일색이다) 노부부의 사랑은 불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난(蘭) 꽃처럼 은은한 향기를 뿌린다. 노부부의 이별(할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 요란하게 걸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할머니 뺨속으로 조용하게 깊숙이 파고든다.

노부부는 아들 셋, 딸 셋 모두 여섯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단 둘이만 산다. 열네살에 시집가서 열여섯 살에 첫날 밤을 지낸 할머니는 아들 여섯, 딸 여섯 모두 열두 명을 낳았지만 반만 살았다. 살아있는 자식 여섯 중에 어느 한 명 노부부를 모신 자식이 없지만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한 겨울에도 죽은 자식들에게 내복을 입히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시장에 가서 죽은 아들 딸 들을 위해 어린아이 내복 여섯 벌을 산다. 할머니는 내복을 살 때 “예쁜 것으로 달라”고 강조한다. 할아버지는 나이 때문인지 숨소리가 가쁘다. 뒷산에 가서 땀나뭇줄을 땀겨 지게에 지고 내려올 때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시계의 초침소리처럼 관객의 청각을 때린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단 둘이 사는



김 화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현 데일리리뷰 정책고문

집에도 가족이 있다. 개 두 마리. 공짜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름을 ‘공순이’로 지은 암개와 삼살개 ‘꼬마’다. 공순이에게 목사 집 수캐가 임신 시켰다. 공순이는 생존한 할머니 자식들처럼 암놈 셋, 수놈 셋 모두 여섯 마리를 낳았다. 공순이가 낳은 새끼들은 전부 애비가 있는 목사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새끼들이 한창 재물을 피울 때 ‘꼬마’ 개가 죽는다. 할머니는 손수 삼으로 무덤을 파고 하얀 수건을 깐 후 꼬마를 묻고 내려오면서 “불쌍한 것”을 되풀이한다. 외로운 노부부에게 개는 가족이었다.

노부부는 오랜만에 노인대학이 주관하는 야유회에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버스에서 할아버지는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지만 기침은 더욱 거세지고 밤에는 가래가 끓는다. ‘꼬마’ 개가 죽은 후 할아버지는 더욱 여위어가고 기력은 떨어진다.

노부부 자식들은 일년에 두 번 부모 집을 찾아온다. 설날과 할아버지 생일. 할아버지 생일에 자식들은 손자·손녀를 데리고 찾아와서 생일상을 차려드리지만 막판에 큰오빠와 막내

딸이 효도 문제로 심한 언쟁을 벌이고 육탄전 일보 직전에 이른다.

할아버지는 23세에 14세의 할머니를 신부로 맞았다. 신부가 너무 어려 16세에 합방을 했다. 합방 전 신랑은 한 방에 자면서도 신부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기만 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16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잘 참아줬다고 고마워했다. 할아버지는 늙어서도 그 때의 버릇으로 할머니의 잠자는 얼굴을 손으로 만진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족에게 말한다.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할아버지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할아버지 옷을 태운다. 아궁이에서 태우고 들에서도 태운다. “곧 따라 갈테니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으라”고 할머니는 말한다.

할아버지를 뒷산에 묻고 혼자 집으로 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겁다. 가까스로 도랑을 건넌 할머니는 논길에 주저앉으며 “끼이끼이” 눈물을 터트린다. 할머니의 울음은 극장 문을 나선 후에도 오래도록 내 가슴에 메아리쳤다. 핵가족시대 효도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이 영화는 단순한 노부부의 삶과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넘어 사회에 던지는 묵시적 메시지가 있다.

끝으로 한 마디. 이 영화는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이기에 그 느낌은 더 절실하고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연출이 가미되어 때때로 노부부의 삶이 작위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연출이 가미되지 않았으면 한결 더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노부부의 삶이 일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4]

경제
이슈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금융강국을 향한 힘찬 레이스!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함께 한 산업은행, 2015년 1월 1일 통합산업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기지개켜는 은둔국 부탄에서 본 ‘행복’

내가 부탄왕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 년 전 나카다니 이와오(中谷巖)의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기과량)’를 번역하면서였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고이즈미(小泉)정부에서 구조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그는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히말라야산맥 동쪽자락의 이 조그만 왕국을 모범적인 이상향으로 소개했다. 왕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술선해서 입헌군주제를 도입했고, 어느 마을에서는 발전소를 세워주겠다는 ODA(공적 개발원조) 제의를 날아다니는 鶴에게 위험하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나는 10명으로 구성된 패 키지그룹에 참가하여 부탄으로 향했다. 부탄의 유일한 국제공항이 있는 파로에 접근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첫 인상은 웅장한 산림이었다. 부탄은 헌법으로 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0%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파로 시내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다. 음식은 인도식과 티베트식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우리 입에 맞았다. 특히 인도식 빵 난이 인기가 있었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한 친환경 밀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적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들어오는 값싼 비친환경적 농산물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정부는 농민이 도시로 집중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두 전통의상을 입고 있었다. 1989년에 제정된 국민의상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나가거나 공무수행중인 부탄시민은 전통의상을 입게 되어 있다. 학생들은 교복처럼 학교마다 다른 전통의상을 입는다. 공부만 잘하면 대학까지 돈 걱정 없이 진학할 수 있고 국비로 외국유학까지 갈 수 있다니 크게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마쳐도 취직하기 힘들고, 공부를 마친 유학생이 돌아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의상은 티베트문화권에서는 특이한 것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들의 언어인 종카어 역시 티베트 라사지방의 방언을 기초로 발전시킨 것으로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티베트어와는 구별된다.

관광은 곱파(사원) 순례로 시작되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800m 절벽 위에 있는 탁상곶파다. 8세기 고승 파드마심바바가 암호랑이를 타고 히말라야를 넘어와서 수행을 한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다산의 성지가 된 치미 라캉도 방문했다. 15세기 티베트에서 온 드룩과 켄리라는 스님이 세웠다는 절이다. 그는 술과 여자를 마다하지 않았고, 거침없고 기발한 행동으로 설법을 해서 유명해졌다. 이 절에서는 참배객에게 남근형상의 막대기로 축복을 해준다. 여자는 이 축복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부근의 기념품상점에서는 나무로 깎은 남근을 팔고 있고, 벽에 거대한 남근을 그려놓거나 문

앞에 남근상을 세워 놓은 집도 있었다. 액막이라고 한다.

요새란 뜻을 가진 종이라고 부르는 사원은 승려구역과 행정구역이 함께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옛날 종교와 통치가 일체로 되어 있던 시절의 유물인데 지역방어요새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한다. 1955년에 수도가 팀부로 이전하기 전까지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던 푸나카에 이 나라에서 가장 아

이남규

·본회 회우·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부탄전통의상을 입은 필자.



부탄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탁상곶파 가는 길의 부탄 소녀들.

름답다는 푸나카종이 있다. 사원은 대체로 티베트의 라마교사원과 같은 양식이지만 훨씬 더 화려하고 깨끗하다. 2011년 현 5대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겔 왕추크는 평민출신 여자와 이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수도 팀부는 파로에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해발 3,120m의 도출라를 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걸린다. 파로와 푸나카에서는 신선한 공기에 경탄했는데 팀부는 달랐다.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2,300m의 분지인데다 주변 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 정부는 차량세를 100% 올리고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며 배출가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홍콩의 부자가 세워준 거대한 부처상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 시가를 내려다보았다. 종, 왕궁, 정부청사, 경기장, 상가, 아파트가 보였다. 고층건물이 없어 전원도시 같은 느낌이었다. 이 나라에서는 6층 이상은 지을 수 없고, 현대식 건물은 아예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내려와서 수천 명의 신자가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국립메모리얼초르텐, 이를 후로 예정된 인도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환영행사를 준비 중인 이 나라 최대의 사원 타시초종을 구경했다.

이렇게 해서 4박일정이 끝났는데 무언가 비경스러운 것을 기대했던 나는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본 것은 쇼윈도처럼 깨끗하고 화려

하게 드는 방글라데시에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고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탄인은 분명히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17세의 나이로 왕국을 물려받은 4대왕 지그메 싱에 왕추크는 국민총행복지수(GNH)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국민의 행복은 물질적 충족에 앞서 정신적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를 보존하고 착한 정치(good governance)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지수는 9개의 영역에 33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은 1에서 4까지 점수화되어 있다. 그 점수가 기준에 미달되면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그의 생각은 1978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소개되어 당시 경제적 발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매년 부탄 또는 다른 나라에서 GNH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UN은 2012년 3월 20일을 ‘국제행복의 날’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학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탄이 인도의 원조를 받아 현재 150만KW인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1,000만KW로 늘리기 위해 대규모 댐을 여러 곳에 건설하고 있다. 부탄에서는 히말라야에서 흘러오는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 최대의 산업이고 생산된 전력의 75%를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유문화와 환경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엄격히 제한했던 부탄이지만 관광이 두 번째로 큰 산업이 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하루 미화 250달러의 부탄여행사 패키지만 구입하면 누구든지 환영이다. 부탄은 연간 10만명 선인 관광객을 2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인도의 자본과 기술로 대형호텔을 세우고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

부탄은 2006년 미디어가 민간에게 개방되어 정부 소유 일간지 쿤첸첸을 포함한 11개의 신문·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 텔레비전은 국영방송국 하나뿐이고, 라디오방송국은 6개가 있다고 한다. 인터넷사용자는 15,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혜택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부탄 사람들은 미디어에 관심이 없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탄인의 행복한 생활을 경제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인도다. 신임 인도 대통령과 수상의 첫 해외방문지는 언제나 부탄이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는 인도는 매년 부탄정부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196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5개년경제개발계획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인도인노동자는 부탄인이 꺼려하는 건설현장 등 3D업종에서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다. [2]

하게 단장한 사원들이 있는 서부지역이었다. 7,000m가 넘는 고봉이 20개나 있지만 트레킹을 하면서 오지로 들어가야 볼 수 있다고 한다. 가이드는 진정한 부탄을 보려면 아직 도로나 숙박시설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동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행복해 보였다. 사진기자 경력이 있는 우리 가이드는 부탄국민의 80%는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탄은 빈부격차가 크지 않으며 거지가 없고 왕도 검소하게 살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무료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신자인 그들은 확실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유럽신경제재단(NEF)의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는 인구 75만, 면적 남한의 반, 1인당 국민소득 1,200달러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세계 143개국 중 최상위로 올라갔다.

부탄여행 후 만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가이드들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탄처럼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최빈

임인흡 원로회우 별세

대한언론인회 최고령 원로 회우 중 한분인 임인흡 회우가 지난 1월 17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1월 21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1918년 3월 20일 강원도 통천에서 출생하여 원산공립중학교, 평양숭실전문대학 농학과를 나온 후 월남해서는 국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47년 매일신문사 사회부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한 고인은 국도신문, 평화신문, 대한일보 사회부기자로

활약했다. 퇴직 후엔 대양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삼익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고인은 타계하기 직전까지도 김은구 회장과 전화 통화에서 “아직 신문이 좋아 일간신문은 물론 경제신문과 국방일보까지도 구독을 한다.”며 언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본회에서는 한영섭 원로위원회 위원장, 김은구 회장, 김영효 이사 등 많은 회우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4]

故 임인흡 형을 추도하며

한영섭(본회 원로위원회 위원장)

생자필멸(生者必滅), 인간의 힘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섭리인 것 같다.

임인흡(林寅翕)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몇 달 전만해도 97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100세를 훨씬 넘겨 장수할 것으로 믿었는데...

세상사 무상함을 절감케한다.

임인흡형은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원산중학교를 거쳐 모친의 고향인 평양에서 숭실전문학교농학과를 졸업하고 8·15 해방직후 월남하여 1947년 매일신문사 사회부기자로 입사, 언론과의 인연을 맺었으나 6·25사변이 발발하자 기자의 길을 잠시 접고 군 특수부대에 지원입대하여 복전대열에 참가, 꿈에 그리던 고향땅을 밟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되어 모친 고생 끝에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여 UN군부대와 함께 흥남항을 통하여 해상철수를 하였다. 1953년 정전과 더불어 군에서 전역한 그는 다시 신문사에 복귀하여 국도신문사, 평화신문사, 대한일보사등에서 줄곧 사회부기자로 12년동안 활약하였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자질도 돋보여 1962년도에 언론계생활을 마감하고 제약회사(대양약품)를 설립하여 20년간, 운수업(삼익물산)에서 10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75세 되던 해에 기업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귀소본능이랄까, 그는 대한언론인회에 입회하여 지난날 정열을 함께 불태우던 친구들과 우의를 다졌고 특히 6·25참전언론인회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으며 언론인들의 시니어 모임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던 그가 작년 10월부터 2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부전화를 했더니 “가슴을 좀 다쳐서 쉬고 있는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내달부터는 모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그의 빈소에는 그가 현역 때 입었던 군복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호국영웅기장이 걸려있었다. 유서대신 장남 학성씨에게 ‘나의 의향서’라는 자필 글을 남겼다. A4용지 4장 분량의 메모에는 첫머리에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부부가 90평생을 해로하고 아내 앞에서 눈을 감으니 어찌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수의는 생략하고

전남석 회우 별세

전남석 회우가 지병으로 1월 23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80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1월 25일 오전 8시 발인했다. 고인은 1935년 전남 영암에서 출생,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1959년 민국일보 편집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후 경향신문 외신부차장, 정경연구소 편집위원, 서울신문 외신부장, MBC경향신문 정경연구소 편집위원, 한국언론연구원 조사분석국장, 기획국장, 자료관리국장 직 등을 역임했다. [4]

故 전남석 형을 보내며

신우식(본회 고문)

전형과는 세 차례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신문에서의 인연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언론연구원에서의 인연이었고 세 번째는 대한언론인회에서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인연은 전형이 24년이란 긴 세월 병석에 누워있는 바람에 길지 못했습니다.

전형은 지금은 없어진 1959년 민국일보 수습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경향신문 외신부 차장, 서울신문 외신부장, MBC경향신문 정경연구소 편집위원을 거치셨습니다.

빈소에서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함께 들은 바로는 고인은 저와 같은 1934년생 이란 걸 알았습니다. 저와 갑장으로 100세 시대를 달려가야 할 마당에 먼저 가셨으니 분하고 애통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24년이란 긴 긴 세월 병석에 누워 계셨으니 얼마나 분하십니까. 제가 주일특파원으로 있을 때(1976~1981년) 전형에게서 받은 로케트가 생각납니다.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출신답게 막스 베버는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그의 저서를 여러 권 사 보낸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한국언론연구원 시절의 추억입니다. 그 때는 저도 애주가였습니다. 무교동에 용금옥이란 추억탕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당시 전형은 한국언론연구원 조사분석국장 이었고 그 뒤 기획국장 자료관리국장 자리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형의 와병으로 대한언론인회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형의 일화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유럽에서 오는 항공기에서 내린 전형의 걸음걸이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동아일보 프랑스 특파원을 통해 산 책들 때문이었습니다. 따로 보낼 생각을 못하고 그 많은 책을 몸에 지니고 왔습니다. 그만큼 미련했습니다(실례!). 어찌 보면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1남2녀의 효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사랑하는 남편을 24년간이나 극진히 모신 부인을 지켜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소서. [4]

군복을 입고 가게 해달라. 나의 유골은 국립 이천호국원에 안치해라...>

고인은 3년간의 군생활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금지와 기개를 잃지 않았던 것 같다.

임형은 생전에 절(寺刹)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보아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것 같다. 이제 모든 번뇌와 고통이 없는 세계에서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

수필

아름다움



김종현

·본회 회우
·전 조선일보 김에디터닷컴 대표

지배하는 것 인가?

「땅공회향」이란 단어의 기사를 읽고 잘못 된 의식을 숙지하기도 했다. 언론사 현역시절이다. 웬지 아름다운 읽을거리 기사와 제목보다 「잘못」을 찾아 지적하며 이렇게 만드는 신문이 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였다. 편집 데스크 시절에도 긍정적 제목보다 부정적이고 잘못을 지적한 제목을 더욱 선호했다. 옳고 그름에 옳은 것보다 그름이 더 편집가치가 있다고 판단, 알뜰하고 씩씩하게 제목을 달았었다.

며칠 새 전엔 가슴 뭉클했던

요즈음 신문을 보면서 옛 「아름다움」이 자주 머릿속을 건드린다. 대통령 지지율 最低, 여론의 경고 위험선, 탈북 국군포로를 死地로 몰아넣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文化 IT 후진국, 새터민 이웃되기, 뽀뽀한 인질 살해犯 “나도 피해자”, 유명인 재산 상속 포기 母子, 사라진 퍼즐 조각 찾아라는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열어가는 세상치곤 모든 것 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다.

뉴라시아 대장정과 통일의 미래 기대를 갖게 하는 한해이긴 하지만 잠이 안 온다. 아기들이 유아원 가기 싫어하고 중고생들이 학교가 싫다고도 한다. 서로서로 도우며 살고 싶은 요즘 사회다. 언론사 현역생활 시절엔 사회의 아름다움보다 잘못된 것을 헐뜯는 제목과 기사를 즐겼다. 1분, 아니 3초만 웃어도 행복감을 느끼는 가슴 뭉클 했던 그 시절은 어디가고 「썰」으로만 가는 것 같다.

열정보다 냉정이 나의 지금 생활을

「빈 마음 운동」만 해도 그렇다.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은 서로 멀리있다고 생각 되지만, 가난하다고 불행하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기에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고 적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기에 넘치기 보다는 모자람이 위안될 수도 있다. 큰 언론사나 작은 언론사나 그 책무는 동일하다.

우리에게 정신개혁운동이 필요한 시대다. 「언론」이라 하여 분별없이 제작해선 안 된다.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비미덕시대에서 소비타락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는 1분에 한 대씩 만들어 지지만 썰은 1년 농사로 얻어지는 것이다. 새마음운동이 물리적 운동이었다면, 새마음운동은 삶의 가치만을 정립하는 시대적 정신운동이다. 그래서 언론 제작도 정신개혁운동이 필요한 시대다. 도식적-공식적 제작은 금물이다. [4]

회우동정

가나다순

계간 '자유지성' 권두언 게재



김두근(전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회우= 계간 '자유지성' 2015년 신년호에 권두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게재.



언론미디어학과 외래교수로 재임명. '방송보도론'을 1년간 강의한다.

삿포로 눈 축제 참여



김현(문화산책 청류회 회장·여행연출가)회우= 2월 5일 문화산책 회원들을 인솔하고 담뱃갑속 은박지에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 그림을 현대화랑에서 감상하고 2월 8일부터는 3박 4일 동안 '2HYUNS' TRAVEL CLUB' 회원 20명과 함께 세계3대 축제의 하나인 일본 삿포로 눈 축제에 참여한다.

2014년 茶人賞 수상



전우벽(전 KBS 아나운서·방송위원)회우= 한국茶人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茶人賞을 받았다. 지난해 송년 茶談회에서 이상을 받은 전회우는 10여년간 전통 茶道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한소리회 회장 선임



조원석(전 KBS 라디오 본부장)회우= KBS라디오 프로듀서 모임인 한소리회 회장에 선임.

지역정책연구원 창립25주년 행사



송용식(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연합통신 편집국장)회우= 1월 2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언론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재선임



심의표(KBS 여맥회 회장)회우= 지난 12월 30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재선임. 임기는 3년.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재임명

윤재홍 본회 논설위원=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와 경기대학교

통일부장관 표창 받아



이태영(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이사)분회 상담역= 지난 1월 5일 북한 인권개선운동을 포함한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여론 활동에 참여한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상담역은 앞서 국제스포츠기구를 통한 언론활동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다.

'120세 長壽有感' 기고



황대영(6·25참전 언론인회 부회장·현우중앙회 자문위원)원로회우= 憲友誌 봄호에 '120세 장수 유감'이란 수필을 기고.

휠체어 타고온 정성... 조용중 회우 협찬금

임원진도 잇따라 "십시일반"

대한언론인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십시일반 협찬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지난해 큰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중인 조용중 원로회우가 휠체어를 타고 본회 사무실에 나와 '더욱 발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쓴 봉투에 1백만원의 협찬금을 넣어 내놓았다. "약속을 지키려고 나왔소. 내가 상체는 건강한데 하체가 약해져서 회복중이야"라며 웃었다. 조용중 원로는 지난 연말 의료지원비 50만원을 수령할 때 "내가 좀 더 보태서 언론인회 살림에 십시일반 반할거야"라고 했었다. 이날 이 자리에 있었던 신우식고문과 김성배, 정기정 감사, 성낙오 편집위원장이 함께 고마



운 뜻을 받고 전했다.(사진)

이밖에 새해들어 협찬금을 낸 회우는 다음과 같다.

제재형 고문(50만원) 흥원기 명예회장(50만원) 김문진 부회장(50만원) 정기정 감사(50만원) 박기병 상담역(50만원) 한기호 상담역(30만원) 이태영 상담역(30만원) 김경태 이사(30만원) 최귀조 이사(30만원) 최신희 이사(30만원)

▶ 회우 경조사 ◀

결 혼

길윤석 회우 장녀결혼= 2월 15일(일요일) 오후2시 강남구 논현동 뉴힐탑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부 음

장준식 회우 부인상= 12월 7일 서울 을지병원 장례식장

대명콘도이용 지역별 요금표

지역	구분	패밀리형(20평 내외)	스위트형(30평 내외)
델피노	A동(구설악)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설악)		
	C동		95,000원~106,000원
	D동		
	호텔	134,000원	
비발디(홍천)	오크동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파인·메이플·체리동	69,000원~79,000원	82,000원~93,000원
양평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단양		59,000원~69,000원	73,000원~84,000원
경주		79,000원	93,000원
거제		118,000원	137,000원
제주		91,000원	109,000원
변산	리조트	79,000원	93,000원
	호텔	90,000원	112,000원
솔비치(양양)	리조트	89,000원	106,000원
	호텔	92,000원~114,000원	144,000원~172,000원
엠블호텔(여수, 일산 키텍스)		142,100원~188,000원	175,000원~285,300원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지용 회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 마길 18

신정호 회우= 서울 은평구 불광동 2길 33 1104동 704호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박기병 회우= 010-3787-0520 (지난호 번호 정정)

이병천 회우= 서울 종로구 무악동 통일로 16길 4-1 골든팰리스 509호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12월 29일 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강두모(15)	민정기(14,15)	이채주(14,15,16)	정준창(15)
강병우(14,15,16)	박석흥(15)	이철영(15)	정창기(15)
고덕환(15)	박승구(15)	이태자(15)	조규만(14,15)
권혁만(15)	박연호(15)	이향숙(15)	조규석(15)
금창태(14,15,16)	박문두(15)	이흥우(15)	조창화(15)
길윤석(15)	박준구(15)	임덕규(15)	최금녀(14)
김경태(15)	송종문(14)	장석영(15)	최병요(14,15)
김관태(15)	신경식(15)	전용호(15)	한영도(14)
김규문(15)	신동식(15)	정용기(15)	홍창덕(15)
김기원(15)	심재복(16)	정일화(14)	
김담구(15)	안건혁(15)		
김두호(14)	안병준(15)		
김성령	안평선(15)		
(입회비,연회비 15)	엄종석(14)		
김세경(15)	여구만(15)		
김수웅(15)	원종선(15)		
김용발(15)	유한준(15)		
김종열(14)	윤병찬(15)		
김한구(14)	윤홍섭(15)		
김한봉(15)	이구섭(15)		
김호곤(14,15)	이도형(14,15)		
김호기(14)	이병국(15)		
김휴선(15)	이연상(14)		
나용경(15)	이성호(15)		
노철용(15)	이용권(15)		
문인수(입회비)	이준우(15)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확정!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선도합니다

경남에 투자하십시오

글로벌테마파크, 항공우주산업, 기계융합산업, 첨단나노융합산업, 조선해양플랜트, 향노화산업 등 5+1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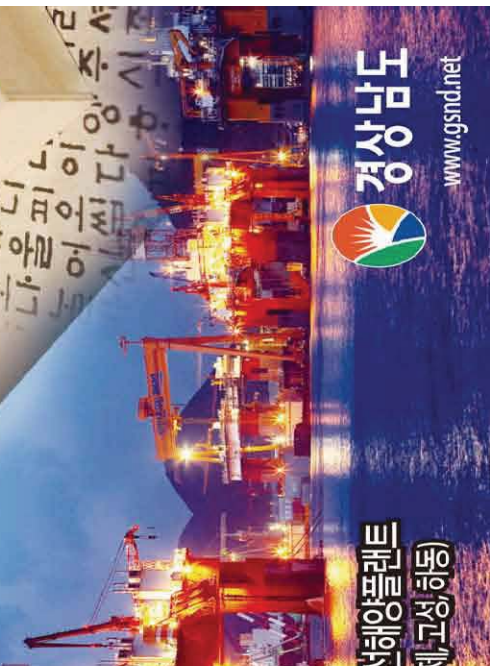
5 + 1 핵심전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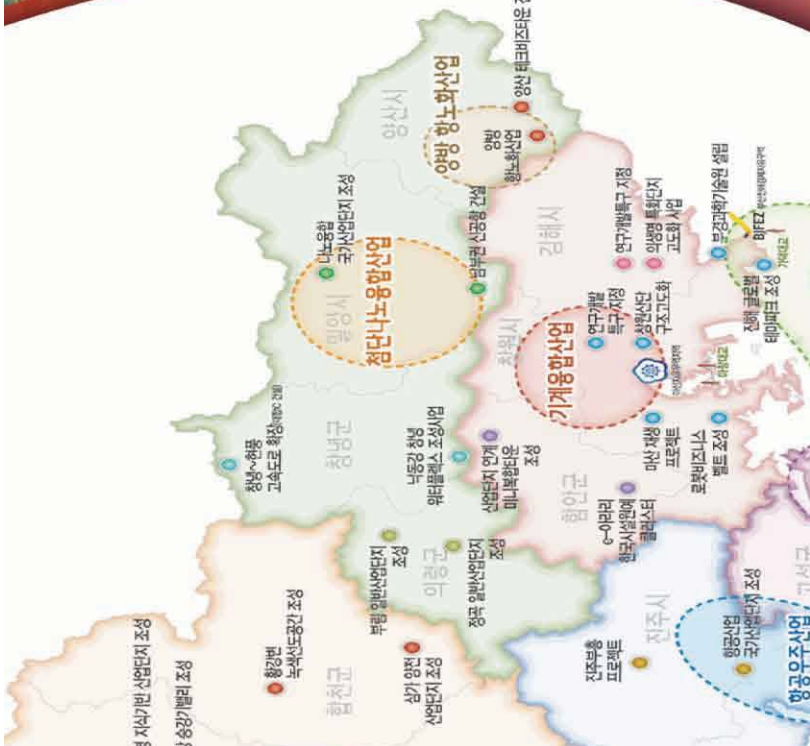
● **글로벌테마파크**
(진해)



● **향노화산업**
(양산·김해·신항·함양·거창·함진·남해·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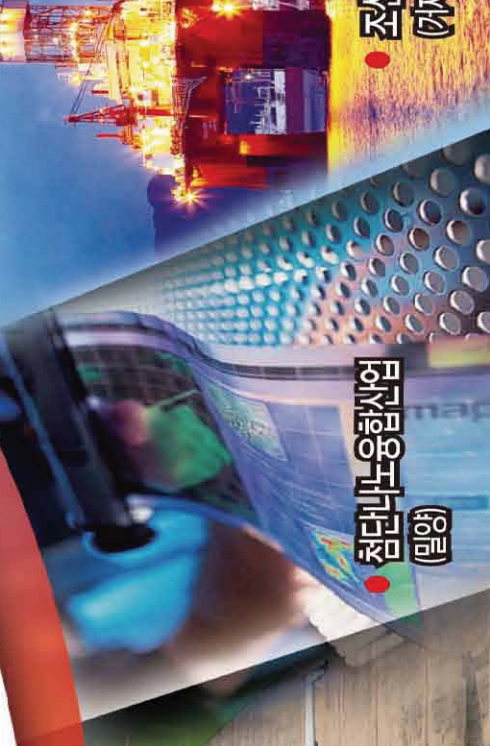
● **조선해양플랜트**
(거제·고성·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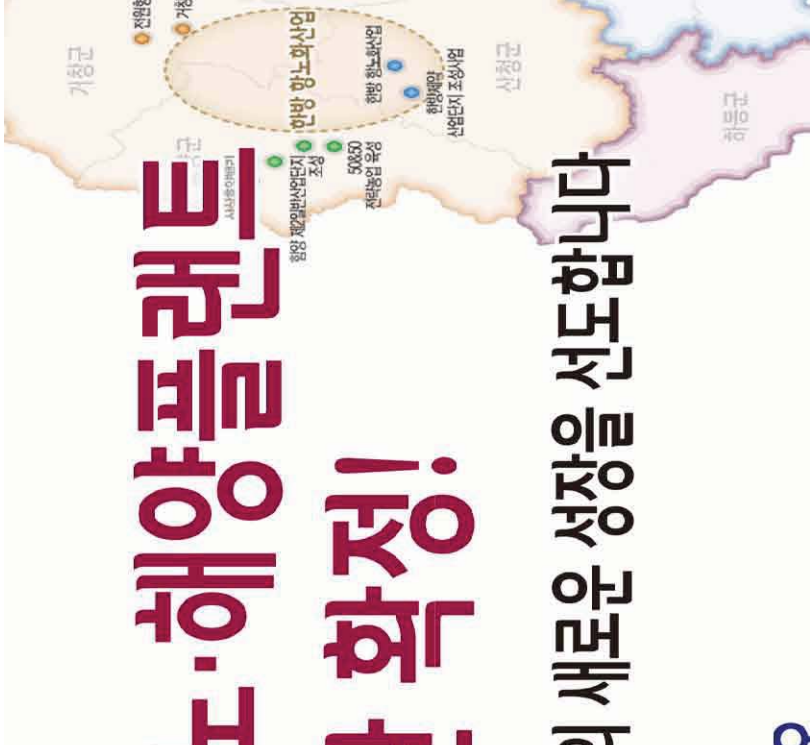
● **기계융합산업**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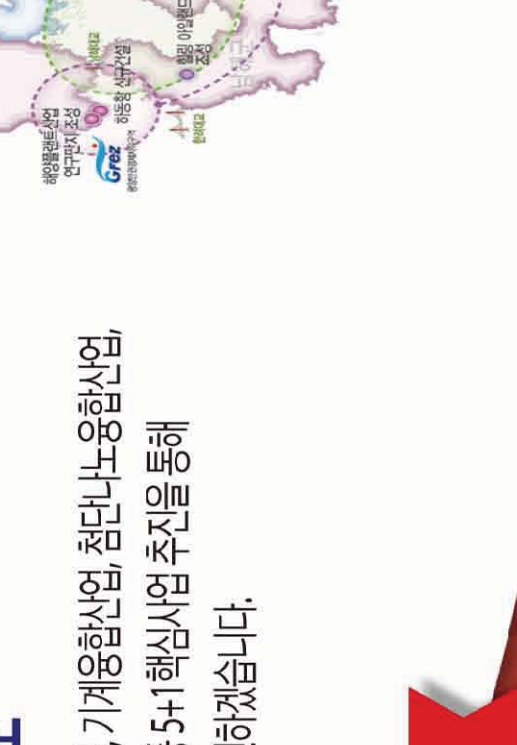
● **항공우주산업**
(진주시권)



● **첨단나노융합산업**
(밀양)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 **향노화산업**
(양산·김해·신항·함양·거창·함진·남해·하동)



● **기계융합산업**
(창원)



● **항공우주산업**
(진주시권)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 **첨단나노융합산업**
(밀양)



● **기계융합산업**
(창원)



● **항공우주산업**
(진주시권)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대한민국은 에너지 충전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물론 수력·양수 및 신재생 에너지까지
언제나 든든하게 충전해 주니까

대한민국, 오늘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리더
 **한국수력원자력주**

■ khnp.co.kr ■ facebook.com/ilovekhnp ■ blog.khnp.co.kr